

## 〈완월회맹연〉 여성 인물 간 폭력의 양상과 서술 시각\*

한정미\*\*

— <차 례> —

1. 서론
2. 〈완월회맹연〉 여성 인물 간 폭력의 양상
3. 폭력적 여성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시각
4. 결론

###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완월회맹연〉에 등장하는 상층 여성 인물 간 펼쳐지는 폭력 상황에 초점을 맞춰 일련의 폭력 사건이 그녀들의 심리적 갈등에서 비롯되었음을 전제하고 이를 작품 내 여러 가지 정황을 분석하는 가운데 그 원인을 규명하려 했다. 아울러 당대에 통용될 수 없었던 이러한 폭력적 여성 인물의 창조를 가능케 했던 서사적 동인은 무엇이었는지 작품 내 서술자의 시각을 추출하는 가운데 살피는 작업을 병행했다.

여성 인물 간 폭력의 양상은 한쪽의 일방적인 폭력으로 인해 상대방이 피해를 입는 경우로만 나타났다. 먼저 고부간에 벌어진 소교완의 폭력은 그녀가 성장과정에서 받아들인 심적 스트레스로 인한 성격적 결함에서 그 1차적 원인을 찾을 수 있었고, 이후 후처의 지위에서 오는 불안감과 시택 식구들로부터 받은 소외감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진실 자식인 정월염을 향해 자행하던 폭력도 고부간에 보여주었던 폭력의 성격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같은 맥락에서 다룰 수 있었다. 둘째, 처처 간의 폭력은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한 쟁쟁이 아니라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는 차이를 보였는데, ‘시어머니의 편애’에 따른 여부인의 심리적 갈등이 극도에 다다라 폭력으로 표출된 것은 ‘시어머니의 사랑을 독점하려는 여부

\* 이 글은 국문장편 고전소설 감상사전 편찬 연구회 주최로 열린 학술대회(2012. 4. 26. 이화여대)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한경대학교 강사

인의 심리적 욕망'에서 그 궁극적 원인을 찾을 수 있었다. 이는 후처가 축출된 이후에도 교숙란에 대한 폭력이 계속 이루어진 점을 근거로 여부인의 폭력이 본처의 자리를 위협받는다는 심리적 압박에 의한 것이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처첩 간 여씨의 폭력은 자신을 버리고 첩을 택한 데 대한 남편을 향한 복수심에서 그 원인을 규명할 수 있었다. 끝으로 첩첩 간에 양일아가 보인 폭력의 원인은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한 쟁송인 것 같지만 이전부터 한난소를 상대로 가졌던 갈등의 연속선상에서 발견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었다. 양일이는 자신의 군주자리를 한난소에게 빼앗겼다는 심리적 박탈감과 거기서 비롯된 갈등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와 결부되면서 심화되는 가운데 폭력의 가해자가 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서술자가 이런 폭력적 여성 인물을 창조할 수 있었던 서사적 동인은 바로 여성을 시대와 제도에 얽어매어 한 가문의 종속적 존재로만 위치 지으려는 당대의 이념을 소설이라는 양식을 빌려 일시적으로나마 전복시키는 쾌감을 맛보게 하려는 것에서 찾을 수 있으며, 그런 당대 여성들의 바람은 <완월회맹연>을 통해 폭력적 여성 인물의 창조로 실현될 수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완월회맹연>의 서술자는 이러한 폭력적 여성 인물의 창조조차 당대 이념에 위배되는 것으로 치부될 여지가 있기에 그녀들의 작품 내 처리 방식에 있어서만큼은 당시의 지배 이념에 예측된 태도를 견지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주제어 | 완월회맹연, 폭력, 여성, 국문장편 고전소설, 고부간, 쟁송, 처첩

## 1. 서론

국문장편 고전소설 연구에 있어서 주요 화두로 부각되는 것 중 하나가 여성이다. 주지하다시피 조선 후기 소설사의 전개에 있어서 그 어느 계층보다도 여성의 역할이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특히 대하소설로 불리는 국문장편 고전소설의 경우 여성과 더욱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주향유층

이 여성이었을 뿐 아니라 작품의 내용을 통해서도 여성의 생활과 여성적 의식 등을 쉽사리 포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1)</sup> 본고에서 다루려고 하는 <완월회맹연><sup>2)</sup> 또한 그러한 성격을 지닌 작품임은 기존 연구들<sup>3)</sup>을 통해 입증된 바 있다. 이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그들이 미처 주목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천착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필자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포착한 것은 여성 인물 간에 벌어지는 일련의 폭력 장면이다. 구체적인 폭력 장면 속에 등장하는 여성 인물을 집중 고찰하는 가운데 당대 향유층이 지녔던 의식의 저변을 살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기존연구에서 관심 있게 다루었던 주요 인물뿐만 아니라 연구자들에게 미처 주목받지 못했던 부수적 인물들의 행동 양상도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즉 부수적 인물군에 속했던 인물의 행동 또한 주의 깊게 다루는 가운데 국문장편 고전소설이 가진 세부적인 면들을 좀 더 면밀히 되짚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왜 폭력에 논의의 초점을 두었는가? <완월회맹연>의 서사적 맥락을 따라가다 보면 이 작품이 지니고 있는 전반적인 분위기 등은 누구나 어렵지 않게 감지할 수 있다. 선행연구<sup>4)</sup>에서도 이미 지적했듯이 <완월회맹연>이란 작품은 여성 소설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상층 사대부가 및 궁중에서 읽혔다는 점에서 우아하며 고상한 분위기를 가진 작품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점잖고 품격 있는 분위기를 지닌 서사

- 
- 1) 이지하, 『조선 후기 여성의 어문생활과 고전소설』, 『고소설연구』 26, 한국고소설학회, 2009, 304-305면 참조.
  - 2) 김진세 독해본 <완월회맹연> 12권을 대상으로 논의를 진행하며 필요에 따라 장서각 본을 참고한다.
  - 3) <완월회맹연>의 연구사는 참고문헌으로 대체한다.
  - 4) 정병설, 『완월회맹연 연구』, 태학사, 1999. 정창권, 『한국고전여성소설의 재발견』, 지식산업사, 2002.

의 흐름 속에서 유독 여성 인물 간에 벌어지는 폭력 장면이 두드러지는 경향이 포착되고 있는 것이다.<sup>5)</sup> 필자는 이 점에 착안하여 그러한 폭력 장면 속에서 재현되는 등장인물들의 행위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국문장편 고전소설의 기존 논의 가운데 ‘폭력’을 다룬 연구가 있다. 우선 정선희<sup>6)</sup>는 <소현성록>에서 보여주는 남편들의 아내에 대한 폭력성을 ‘오랫동안 버려두기, 일반적으로 구애하기, 오해하여 심하게 내치기, 무력으로 제압하기’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 고찰하는 가운데 이러한 남편들의 폭력성에 대한 서술자의 시각이 그리 부정적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여성 창작물이거나 여성주의적 성격을 지닌 작품들마저 가부장적 질서 유지를 최우선으로 삼는 시각이 내재해 있음을 밝혔다. 한길연<sup>7)</sup>은 대하소설에 나타나는 ‘남편 폭력담’의 양상을 신체 폭력담, 성적 폭력담, 언어 폭력담으로 나누어 살펴보는 가운데 여성의 몸에 가해질 수 있는 남성 폭력은 다양한 의미망을 함축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들 연구는 가부장제 가문 하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불가항력적인 폭력을 행사한다는 데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 남편 폭력담 내지는 남편 폭력성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가운데 그 의미를 당대적 맥락에서 짚어보았다. 그러나 봉건적 가부장제도권 하에서의 남편들의 폭력은 조선이라는 시대가, 가부장제라는 사회적 제도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가운데

5) <완월회맹연> 내에서 드러나는 여성 인물 간 폭력의 양상은 이 작품보다 후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임씨삼대록>에 비하면 폭력의 수위라든지 폭력의 양상 등이 훨씬 덜하다. 그럼에도 <완월회맹연>에서 여성 인물 간의 폭력 양상을 다루려는 것은 작품 전반적 분위기와는 사뭇 동떨어진 여성 인물들의 폭력 행위가 포착되었기 때문이다.

6) 정선희, 『<소현성록>에서 드러나는 남편들의 폭력성과 서술 시각』,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4,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7.

7) 한길연, 『대하소설에 나타나는 ‘남편 폭력담’의 양상과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1,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0.

지행된 것임을 볼 때, 일련의 폭력에 대해 당대적 맥락에서 도출될 수 있는 의미는 한정될 수밖에 없음<sup>8)</sup> 또한 주지의 사실이다.

국문장편 고전소설 내에는 이렇듯 공식적으로 인정된 남성들의 여성에 대한 폭력뿐 아니라 여성 인물 간에 벌어지는 폭력의 양상 또한 간과할 수 없을 정도로 심심찮게 포착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바이다.<sup>9)</sup> <완월회맹연>에서 보이는 여성 인물 간에 벌어지는 폭력은 처첩관계에서만뿐만 아니라 고부간, 모녀간, 조손간 등 다양한 관계 속에서 드러나고 있음을 볼 때, 이들의 폭력 양상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여성 인물 간에 펼쳐지는 폭력의 양상을 다룬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다.<sup>10)</sup>

- 
- 8) 앞서 언급한 선행연구에서 드러난 의미에서 ‘남편들의 폭력에 대한 서술자의 시각이 부정적이지 않다는 것’은 당대 향유층의 의식 또한 가부장제라는 제도권 하에 얽매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며, 또 ‘현실의 이념을 더욱 공고히 구축하는 기제’를 엿볼 수 있다는 논의에서도 이런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 9)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은 이미 한길연에 의해 강조된 바 있다. 한길연은 대하소설에 나타난 ‘남편 폭력담’을 다루는 가운데 ‘여성의 몸’과 관련하여 대하소설에 심심찮게 나타나는 ‘여성이 여성에 대해 행하는 폭력의 양상’ 또한 연구의 중요성을 지닌다고 언급한 바 있다.(한길연, 위의 논문, 2010, 72면 참조)
- 10) 물론 장시광이 보여준 각 작품별 ‘여성수난담’의 논의에서 남성이 여성에게 행하는 폭력뿐만 아니라 처첩과 첩첩 간의 갈등 속에서 벌어지는 여성 인물들의 육체적 수난을 다루고는 있으나 ‘폭력’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고 있다는 점에서 본고와 차이를 갖는다. 또한 ‘여성수난담’에는 그 초점이 고난을 당한 피해자에게 더 맞춰져 있음을 볼 때, 여성 인물 간에 발생한 폭력 당사자들의 입장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가운데 폭력 상황이 발발하게 된 근본 원인 규명을 비롯해 가해자가 폭력을 어떤 의도로 사용하게 되는지, 그러한 폭력의 피해자가 폭력에 대응하는 태도, 그 상황을 둘러싼 주변인들의 반응 또한 아우르려는 본고의 논의와는 구별된다. 다음의 논의를 참조하기 바란다.(장시광, 『<현몽쌍룡기> 연작에 형상화된 여성수난담의 성격』, 『국어국문학』152, 국어국문학회, 2009 / 장시광, 『<쌍천기봉> 여성수난담의 특징과 그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21,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0 / 장시광, 『<소현성록> 연작의 여성수난담과 그 의미』, 『우리문학연구』28, 우리문학회, 2009 / 장시광, 『<명주보월빙>의 여성수난담과 서술자의식』,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17, 한국고전여성

이에 본고는 선행연구의 업적에 힘입어 여성 인물 간에 벌어지는 폭력의 양상을 다루고 그러한 폭력 장면을 연출하게 된 서술자의 의도는 무엇인지 아울러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 연구에서 다룬 가부장제 남성들의 폭력 양상과 그로 인해 도출된 의미들을 염두에 두면서 국문장편 고전소설에서 보이는 여성 인물 간의 폭력 양상을 다루다 보면 작품 속에서 서술자가 표출하고자 했던 의도와 당대적 맥락에서 여성 인물 간에 벌어지는 폭력의 의미 또한 되새겨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 2. 〈완월회맹연〉 여성 인물 간 폭력<sup>11)</sup>의 양상

〈완월회맹연〉에서 여성 인물 간에 벌어지는 폭력의 양상은 쌍방이 아닌,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폭력으로 인해 상대방이 피해를 입는 경우로만 나타난다. 또한 주로 상층 여성 인물 간의 폭력이 주를 이루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하층 여성 인물 간의 폭력 양상도 포착<sup>12)</sup>된다. 폭력 당사자들은

---

문학회, 2008 / 장시광, 『<유효공선행록>에 형상화된 여성수난담의 성격』, 『배달말』 45, 경상대학교 배달말학회, 2009 / 장시광, 『운명과 초월의 서사-〈임씨삼대록〉 여성수난담의 성격』, 『고소설연구』31, 한국고소설학회, 2011)

11) 본고에서 다루려는 ‘폭력’은 가해자가 상대방을 대상으로 행하는 언어적 폭력인 ‘폭언’과 물리적인 수단이나 힘을 동원한 신체적 폭력인 ‘폭행’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선행연구(한길연, 위의 논문, 2010)에서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하여 신체 폭력담, 언어 폭력담 등으로 나누어 고찰했으나 일반적으로 폭력이 이루어질 때에는 단순히 때리는 행위만 이루어질 때도 있으나 욕설을 하는 가운데 자연스런 폭행이 뒤따르거나 폭행을 하는 와중에 폭언을 한다는 점, 또는 폭언만 난무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에 본고에서는 폭언과 폭행을 구분하지 않고 이 둘을 ‘폭력’이란 용어로 대표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또한 본고에서는 ‘폭력’을 ‘가해자의 심리적 갈등이 극도에 다다른 상태가 구체적인 행위(폭언이나 폭행)로 표출된 것’으로 보고 이러한 심리적 갈등이 폭력 상황을 초래하지 못할 경우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12) 하층 여성 인물 간의 다툼을 보여주는 것으로 ‘자신을 훈계하는 시어머니를 향해 머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시어머니와 며느리, 어머니와 딸, 할머니와 손녀<sup>13)</sup>, 처처, 처첩, 첩첩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여성 인물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폭력의 상황을 집중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즉 폭력이 발생하게 된 갈등의 배경부터 이를 둘러싼 당사자들의 입장, 그러한 폭력 상황에 대한 주변인들<sup>14)</sup>의 대응 태도 등을 고찰하고자 한다.

### 1) 며느리 이자염을 향한 시어머니 소교완의 폭력

일반적으로 계모를 영입하는 이유는 가문의 후사를 잇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전실 소생 중 남아가 있는데 계모가 들어와 아들을 낳은 경우이다. 이럴 경우 계모로 들어온 후처는 자신의 아들을 계후자로 세우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전실 자식을

---

느리가 대들며 자살 시도까지 벌이는 내용'이 있다. 구체적인 폭력 상황으로까지 치닫지는 않았으나 하층 여성 인물 간 말다툼 끝에 극단적인 행동을 일삼는 며느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 이에 잠깐 언급한다. [악행을 일삼던 아들 왕술위가 죄의 대가로 죽었다는 소식을 접한 어머니 황고랑이 며느리 녹빙의 처소에 들러 아들의 죽음을 슬퍼한다. 이어 며느리 녹빙에게 그간 왕술위가 저지른 잘못들을 일일이 열거하는 가운데 소교완과 정인중의 불미스런 행동들을 언급하며 앞으로 죄를 짓지 말라고 훈계하자 녹빙이 발끈하며 시어머니인 황고랑에게 대드는 상황이 펼쳐지고 급기야 칼을 빼 그 앞에서 자결하려는 모습까지 보인다.] <완월회맹연> 93권

13) '손녀에 대한 할머니의 폭력(조손간)'은 '양일야와 한난소(첩첩)'간에 벌어진 사건과 중복되는 내용이 있으므로 여기서 간략히 언급한다. [한난소가 임신한 후 친정 한씨 부중에 왔을 때, 그녀의 할머니인 주태부인이 행하는 폭력이다. 주태부인은 자신의 하나뿐인 외손녀 양일야가 정인성의 사랑을 얻지 못하는 상황을 억울해하는 가운데 정인성의 아이를 임신한 손녀 한난소가 친정에 오자 다음과 같이 폭력을 행사한다.] "흐뭇 보되 노복이 진닐르고 슈미 꺾고라지니 불연이 님찌나 봉권을 빗겨 더지고 두 발을 풀쳐 손의 쥐고즈 흐뭇 밋그러오미 기름 씨손 듯혀여 능히 쥐지 못하니 이에 더지고 두 발을 모도 굴너 그 엽홀 츠고져 하니" <완월회맹연> 121권.

14) 규방 내 여성 인물들 간에 벌어지는 폭력 상황이기에 이는 비공식적,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성상 '주변인들'이라 함은 주로 가족과 친지, 시비 등으로 한정된다.

학대하며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하는 모습을 보인다. <완월회맹연>에서도 이러한 계모의 모습이 포착되며 이들의 갈등은 작품 초반부터 긴장을 늦출 수 없을 정도로 숨 가쁘게 진행된다. 일반적으로 계모와 전실 소생의 갈등은 대부분의 소설에서 계후갈등으로 분류되곤 한다. 그러나 <완월회맹연>에서의 계후갈등은 그 성격이 좀 다르다. 작품 속 계후자로 지목된 정인성은 엄밀히 말해 전실 소생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씨 가문의 맏며느리였던 양부인은 남편 정잠과의 사이에서 두 딸만 두고 아들을 낳지 못한다. 평소 연약했던 양부인의 몸 상태를 보고 정잠은 아우 정삼의 쌍둥이 아들 중 정인성을 계후자로 정하고 그를 자신의 양아들로 받아들인다. 이후 양부인은 건강이 악화돼 죽고 정잠은 부모님의 강권에 못 이겨 후처로 소교완을 맞이하게 된다. 정씨 부중에 들어온 소교완은 맏며느리로서의 역할을 빈틈없이 해내는 가운데 시댁 식구들로부터 인정받으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후 남편 정잠과의 사이에서 쌍둥이 아들 정인중과 정인웅을 낳게 되면서 이미 계후자로 정해진 정인성을 없애려는 갖은 음모를 꾸미는 가운데 가문 내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사실 전실 소생도 아닌 정인성이 정씨 가문의 대를 잇는 계후자가 된다는 것은 한 집안의 총부인 소교완의 입장에서 보자면 자신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라고 여겨질 수 있다. 시댁에 들어와 아들을 낳지 못했다면 수궁했을 수도 있었을 테지만 쌍둥이 형제까지 낳았는데도 이미 양아들 정인성을 계후자로 정했기에 이를 따라야 한다는 것은 후처의 입장에서는 매우 부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소교완이 처한 억울한 상황에 대해 심본 공감하면서도 한편으로 그녀의 행동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죄 없는 며느리에게까지 독수를 뺏치는 것이다. 계후갈등의 당사자인 정인성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인 이자염에 대해서도 혹독한 학대를 가하는데 이 과정

에서 며느리 이자염은 시어머니인 소교완으로부터 여러 차례 폭언과 폭행을 당하는 와중에 죽을 고비를 맞게 된다.<sup>15)</sup>

다음은 이자염이 갓 출산한 후 시어머니 소교완에게 당하는 폭력 장면이다. 소교완은 출산한 며느리 이자염에게 산모의 기운을 북돋아주는 약이라며 독약을 주고는 자신의 앞에서 다 마시게 한다. 이에 이자염은 ‘산후의 기운이 허약하니 달야토록 독약을 년하여 먹으며 코히 쏘히니 기운이 엄엄하여 정흔이 어득’<sup>16)</sup>함에도 주는 독약 그릇을 깨끗하게 비운다. 그러나 또다시 건네주는 약은 ‘더욱 흉독하야 후간을 넘기미 명익이 보전할 길히 업’<sup>17)</sup>을 것 같아 ‘흔 먹음의 미쳐 습키지 못하야 비위 거스리고 북받쳐 토하’<sup>18)</sup>게 되고, 곧 약그릇이 땅에 엎질러져 푸른 불꽃이 일어나며 온 방안이 연기로 가득 찬다. 날이 밝기 전 이자염을 죽이려던 소교완은 자신이 밤새 달인 독약을 구도하며 다 뺏어버린 며느리 이자염을 향해 극심한 폭력을 자행한다.

적취하였던 노기 더발하니 이에 더미 왈, 요약흔 년이 이제 몸을 위하야 니 달야 노고흔 거술 약을 순순 토하는 체하야 먹지 아니니 이는 날을 의심하는 언과라. 니 너를 죽이려 하논 줄 아는다. 분명이 그리 알면 오날날 당당이 너를 죽여 설한하리라. 언과의 소저의 운발을 쓰어 브드이고 철여의를 드리 치기를 한업시 하야 머리브터 나리 좃두다려 일시 백체의 남은 더 업

15) 이자염에 대한 소교완의 학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은 정잠과 정인성이 나랏일로 외부로 나간 다음부터이다. <완월회맹연> 41권 / 이후 소교완은 정인성에 대한 증오심을 그 처자에게 돌려 극심하게 괴롭힌다. 갓 출산한 이자염에게 독약을 먹이는가 하면 그녀가 낳은 아이를 다른 이의 신생아와 바꾼 후 이자염이 낳은 아이를 벼랑 끝에서 내던져 죽이려고까지 한다.

16) <완월회맹연> 53권.

17) <완월회맹연> 53권.

18) <완월회맹연> 53권.

**시 두다리니 두골이 쇠삭하고 옥면이 남은 뒤 업시 웃쳐지고 뉴혈이 방죽  
의 가득하여시니<sup>19)</sup>**

이자염은 현재 갓 출산한 상태의 몸이다. 여성이 출산 후에는 온몸의 뼈가 이완된 상태, 다시 말하면 정상인으로서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만신창이가 된다. 10개월이나 되는 임신기간 동안 태아를 키워오면서 희생을 치른 몸이 다시 오랜 시간 분만의 고통을 겪으면서 망가지는 것이다. 이자염이 초산이었음을 감안할 때, 출산의 고통이 문면에 드러나 있지는 않으나 그녀가 겪었을 산통은 십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여성에게 있어서 출산은 다른 무엇보다 각별한 기억을 남긴다. 특히 의학이 발달하지 않은 전통사회에서는 그 위험도와 고통으로 인하여 평생 뇌리에서 지울 수 없는 기억을 각인한다.<sup>20)</sup> 전통사회에서 한 집안의 며느리로서 그 집안에 대를 이을 자식을 낳는 일은 이렇듯 죽음까지도 불사해야만 하는 위험천만한 일이었다. 게다가 출산은 대를 잇게 하는 성스러운 일이<sup>21)</sup>며 분명 축복받을 일이지만 이자염은 축복은커녕 뚜렷한 잘못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듯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던 것이다. 이렇듯 사경을 헤맬 정도의 산통을 겪었을 한 여성을 그것도 같은 여성이 이렇듯 무참히 폭력으로써 대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그러나 소교완의 필박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음과 같은 폭력 장면으로 이어진다.

**소저의 응지 갖튼 괴부와 옥 갖튼 세 철여의에 다 바이다 혼변 여의가**

19) <완월회맹연> 53권.

20) 정병설, 「<옥원재합기연>의 여성소설적 성격」, 『한국문화』 21, 서울대학교한국문화연구소, 1998, 54면.

21) 정병설, 위의 논문, 1998, 54면.

다지는 바의 쇠삭하고 뉴혈이 줄지어 흐릿되 조금도 측은함미 업셔 금일은 소저의 명을 쫓쳐 적년 싯흔 분원을 설혀려 흐는지라. 스갈 갖튼 포학호 성으로 소저를 한업시 두다리나 무한 쾌치 아나 오히려 스라날가 녀녀하니 교아 절치 왓, 요괴로운 년이 저와 니 전세 므슴 업원으로 이 원슈를 싯하노. 니 목전의 요녀의 명을 쫓쳐 죽는 양을 보지 못하면 출아리 니 죽어 보지 아니미 나호리로다. 씨의 소제 구름 갖튼 운발이 신상의 가득하고 아릅아온 향택이 미묘하니 죽도록 치되 브족하여 발노 츠며 브티이저 슝이 츠마 못홀 비러라.<sup>22)</sup>

소교완은 또 다시 쇠몽둥이로 사정없이 이자염의 몸을 두들겨 팬다. 그럴 때마다 이자염은 피부가 찢기고 뼈가 으스러지는 가운데 온몸에 피를 흘린다. 그럼에도 소교완은 이자염에 대한 일말의 측은함도 없이 또 다시 살아날까봐 죽도록 때리고, 이도 부족할까 싶어 그녀를 발로 걷어찬다. 인용문 마지막 부분에 “스름이 츠마 못홀 비러라”라는 서술자의 평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미 그녀의 폭력은 인륜적으로 도저히 용납되기 힘든 상황으로까지 치달고 있는 것이다.<sup>23)</sup>

결국 이자염은 혼절하기에 이른다. 움직이지 않는 이자염을 두고 소교완은 또 다시 “요약 별물이 거긋 죽은 체 흐거니와 즉시 도로 찌여 반석 갖툼 거시니 약을 먹여 마츰니 죽이리라”라는 폭언을 퍼부으며 아들 정인중으로 하여금 독약을 가져오게 한다.<sup>24)</sup> 이에 소교완은 “소저(이자염)의

22) <완월회맹연> 53권

23) 이후에 이어진 장면에서는 서술자가 소교완의 폭력을 두고 “소제 시운이 건비하고 운익이 티협호 씨를 만나 여츰 번난을 당하니 츠츠 비외로다”라는 식의 언급을 하고 있다. 여기서 서술자는 이자염의 편에 서 있으나 그녀의 이러한 고통이 ‘시운’과 ‘운익’이 지극히 험난한 때를 만났기 때문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보아 오로지 소교완이 보여 주는 폭력적인 행동만을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는 듯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술자 의식과 관련하여 3장에서 논한다.

24) 정병설은 앞의 책, 1998, 138면에서 소교완이 이렇듯 맹목적인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가슴 우히 올라 안즈 흥순을 어귀오고 약을 브으려 흐”는 모습을 보이기 까지 한다.<sup>25)</sup>

소교완의 이자염에 대한 폭력은 고의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느 날 소교완은 자신의 잠자리 시중을 들러 온 며느리 이자염에게 편지 한 통을 내어주며 읽어보게 한다. 그 편지에는 이자염이 자신의 친정어머니 조부 인한테 시어머니 소교완에 대해 원망하는 내용<sup>26)</sup>이 적혀 있었다. 이자염은 곧 정인중이 자신의 필체를 본떠서 쓴 것임을 알게 되지만 이를 내색하지 않고 그저 소교완에게 잘못을 아뢰며 죄를 청한다. 이에 소교완은 이자염을 사정없이 난타한다. 그 폭력 장면이 구체적이고 세세히 묘사되어 다음에 제시해본다.

(소교완은) 소저(이자염)에게 다라드러 고요히 **업닥였는 위히 걸터안즈  
구름 갓튼 머리를 층층이 썬은 거술 펼쳐 줄을시 순순이 뗏그러워 전종의**

가문 내에서 자신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를 입히지 않으며, 또 자신은 악행을 저질러도 아들 정인중이 그릇된 행동을 하는 데 대해서는 엄하게 꾸짖는 모습을 통해 소교완은 “건고하고 강렬한 이중성격의 소유자”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완월회맹연> 53권에서는 소교완이 갓 출산한 이자염을 죽이기 위해 아들 정인중을 한약방에 보내 독약을 제조해오게 하면서 악행의 보조자 역할을 맡게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자신의 악행의 동조자로 아들 정인중을 끌어들이는 모습이 포착되는 것이다. 이러한 소교완의 이중적인 성격은 그녀를 둘러싼 주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할 때 그 실상을 면밀히 파헤칠 수 있을 것이기에 이에 대해서는 차후 원고를 달리하여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25) 이후 다행히 소교완의 아들 정인용이 들어와 형수 이자염에게 행하는 어머니의 만행을 가까스로 말리게 되지만 이때에도 그녀는 독약 그릇을 잡고 말리는 아들 정인용의 손을 깨무는 행동을 보이는 등 상충 사대부의 정숙한 여인으로서의 체면을 깎는 짓을 서슴지 않는다. 이러한 폭력 장면은 <완월회맹연>의 전체 분위기와 맞지 않는데 이에 대해선 3장에서 논하기로 한다.

26) “즈기 친당 모부인 도시게 올닌 바 상서로디 허다 괴롭고 슬픈 말노써 소부인의 브즈 간독흠과 닌중의 불인 요약흐를 갓초 베퍼 맛츄니 즈기 부부 모즈를 업시코 굿치리라 흐여 만편 원망이 히연 츱약흐니” <완월회맹연> 68권.

도 손이 절노 풀여 좁히지 아니므로 손이 무슈히 휘감아 쥐고 것턱 금척을  
드러 그 엇게와 등을 좃을히다가 그 여러 벌 옷 우히므로 불쾌하여 급히  
칼노써 녹슴과 취복의 등술을 쓰져 김 적슴 혼 벌노 살흘 가리오고 다시  
치기를 시작하니 다닷는 곳마다 빅포 단숨이 흥화를 썩린 닷 혈칙이 난만  
호티 소제 죽은 다시 브복하여 슈소리도 잊지 아니코 호발도 요동치 아니  
하니 그 스랸는 줄 아지 못홀지라. 부인이 모진 괴운과 독혼 심용을 다하여  
두어 식경을 난타호티 단숨은 임의 흰 빛치 업서 흥초 적슴의 되엿고 소제  
또호 혼도하여 인스를 브러시니 츠경은 숨싱구슈라도 츠연호미 업지 아니  
홀 거시로디 부인이 각골이 피오물 츠마 견디지 못하고 츠마 어지지 못하여  
그 머리를 호변 잡아 호변 브드잇고 몸을 압호로 풀쳐 단숨 스텍을 밀고  
옥비를 썩혀 호변 르려 세치니 고은 머리 썩여지고 피 흘너 옥저의 연호  
살히 썩러져 부인의 넓 속의 먹는 고기 조각갓치 담기니 썰니 비왔고 정히  
칼흘 잡아 소저의 다리를 지라고져 호터니<sup>27)</sup>

소교완은 이미 그 편지가 며느리 이자염의 소행이 아님을 알고 있는 상황이다.<sup>28)</sup> 그런데도 순순히 엮드려 죄를 청하는 이자염의 등바다 위에 걸터앉은 소교완은 층층이 땀은 이자염의 머리를 손으로 풀어헤쳐 잡는다. 그러나 곧 매끄러운 머릿결 때문에 미끄러워 제대로 잡히지 않자 손에 여러 차례 휘감아 준다. 그리고는 옆에 있는 쇠로 만든 자를 들어 이자염의 어깨와 등을 ‘좃을히’는데 이때에도 여러 벌 옷을 입은 상태라 매질의 효과가 덜할까 하여 급기야 칼을 꺼내 이자염의 녹삼과 취복을 찢고는 얇은 적삼 한 벌만 입혀놓은 채 다시 수차례 때리기 시작해 이렇듯 두어 식경

27) <완월회맹연> 68권.

28) 정인중은 어머니 소교완에게 문안인사 차 들렀다가 어머니가 내놓는 편지를 보고 순간 당황한다. 발뻠하려 하나 이어진 어머니의 추궁에 정인중은 자신이 형수 이자염의 필체를 모사해 꾸민 편지이며 시비들을 시켜 어머니 앞에 바친 것임을 이실직고한다. <완월회맹연> 68권

을 난타한다. 흰색 홀저고리가 피로 물들어 붉은 적삼이 된 채 매질을 견디던 이자염은 결국 혼절한다. 그러나 소교완의 폭력은 멈추지 않고 계속된다. 이번엔 이자염의 단삼 소매를 걷고 드러난 팔을 자신의 이빨로 한입 깨물어 떼어내는데, 소교완의 입 속에 이자염의 뜯긴 살점이 마치 고깃조각 같이 담겼다는 표현을 통해 “정히 주린 범이 도흔 고기를 만남 갖튼지라<sup>29)</sup>”라는 서술자의 언급을 보다 구체적으로 재현해내고 있다.<sup>30)</sup>

소교완은 분명 그 편지가 아들 정인중의 소행이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던 터였다. 그럼에도 그녀는 이를 핑계 삼아 며느리 이자염을 혹독하게 매질을 하고 심지어 칼로 찔러 죽이려고까지 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단순 계후 갈등으로 인한 미움 내지는 증오라면 정인성만 괴롭히면 되는 것인데, 이렇듯 며느리를 심하게 학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 즉 고부간의 갈등을 문제 삼을 때에는 자신이 낳은 아들을 다른 여자(며느리)에게 빼앗겼다는 심리적 박탈감이 작용하여 아들을 빼앗긴 서운함 등을 며느리에 대한 구박과 학대 등의 행동으로 표출하기도 한다. 또 한 가지는 같은 며느리의 위치에서 예전 자신이 겪었던 시집살이의 고됨을 현재 자신의 며느리에게 그대로 투사하여 되갚아주려는 데서도 그 구박의 원인을 찾을 수 있겠다.

그러나 소교완과 이자염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소교완에게 있어서 정인성은 전처의 소생도 아니고 계다가 자신의 친자식도 아니다. 그렇다면 이렇듯 며느리 이자염을 향한 시어머니 소교완의 폭력은 어디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까? 이러한 폭력 상황이 계후갈등에서 비롯되었다 하더

29) <완월회맹언> 68권.

30) 이러한 폭력은 소교완의 여종 녹빙의 딸 후아가 만단으로 말린 후 잠시 소강상태를 갖는다.

라도 그것이 근본적인 원인은 되지 못한다는 점은 지금까지 소교완이 벌인 폭력적인 장면들을 통해 충분히 입증되었다. 자연스레 폭력의 원인 규명을 위해 소교완에게 관심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

소교완은 앞서 언급했듯이 정잠의 전처인 양부인이 죽고 그 자리를 대신해 맞이한 후처이다. 그녀는 소희량과 주태부인의 막내딸로 태어났다. 소씨 가문의 여러 형제자매들 중 막내라는 이유로 어려서부터 온 집안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자랐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적 요인<sup>31)</sup>에서인지 소교완은 점차 자라면서부터 영악하고 교활한 성품을 지니게 되었고 이는 늘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었다. 이렇듯 자신의 성품을 경계하던 부모의 태도는 소교완이 성장하는 가운데 고스란히 그녀에게 전달되었을 것이다. 이에 소교완은 그러한 부모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 여러모로 노력을 기울였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에 마음 졸이는 부모님을 헤아리는 가운데 더욱 행실에 주의를 기울이며 자신을 다잡기에 빈틈이 없었을 것<sup>32)</sup>이다. 이는 어린 소교완에게 있어 크나큰 심리적 스트레스로 자리했을 것임이 자명하다.

이후 소희량은 막내딸 소교완이 비록 재취자리이긴 하지만 정잠과 같은 군자의 아내가 된다면 그녀의 영악한 성품이 조금이나마 누그러질까 기대하고 그녀를 정씨 부중으로 보내게 된다.<sup>33)</sup> 여기서 소교완의 심정은

31) “부모의 만나 필요로 귀중 괴이히미 비길 더 없고 일가 계족의 사랑을 오로디 점득히 여 신세 쾌활하고 녀형의 정정히미 숙녀의 일두를 사냥치 아닐디라.” <완월회맹연> 45권 / 이렇듯 유아기 때 온 집안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자란 아이는 성장과정에서 자신에게 집중된 관심을 일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그렇게 자란 아이가 이후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타인의 사랑과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지 못할 경우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보인다는 점이다. 소교완은 바로 이러한 심리적 불안정을 자신도 제어할 수 없는 폭력으로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32) “우리 부피 성덕히시미 니 조소로 부모의 교훈을 밧좁고 의방을 드리어 녀형의 그르미 업거늘” <완월회맹연> 45권

어떠했을까? 자신이 정잠의 후처로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접한 소교완은 그간 부모의 근심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했던 바가 모두 수포로 돌아가고 오히려 자신의 성품 때문에 재취자리로 보내려는 아버지 소희량의 선택에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태<sup>34)</sup>였을 것이다.

비록 정잠의 후처로 들어가긴 했으나 소교완은 정씨 부중에서 집안의 맏며느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낸다. 그러나 애초부터 시댁 식구들은 그녀를 겉으로는 호의적으로 대하지만 죽은 양부인과 비교하는 가운데 그녀의 인물됨이 양부인보다는 못하다는 점을 안타깝게 여긴다.<sup>35)</sup> 더구나 혼인한 이후 3~4개월간 남편 정잠은 소교완과 첫날밤도 치르지 않다가 어머니 서태부인의 강권에 마지못해 동침하게 된다.<sup>36)</sup> 이러한 시댁 식

33) 소교완의 아버지 소희량은 딸의 성품이 특이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며 소교완을 정씨 부중에 보내면 그녀의 교활하고 간악한 성품이 바뀔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다. **“소노공의 디안이 신기하고 식견이 타인의 만히 디나므로 계녀의 너모 별출호고 이상함을 도로혀 깃거아나 비필을 근심호미 갑다가 정청계(정잠)의 상실호를 인호야 직취로 도라보늬믄 뭇옴의 혜으리미 여러 가디라. 일즈는 성문 범풍을 목욕호야 녀의 교활호미 단명호미 밋고 이즈는 군즈의 슬복호야 녀의 간능호를 덜습호미 니틀가 호고 삼즈는 입향순숙이라. 명가 덕의를 습여성성호여 튜성디인으로 다락디 아닐가 호엿더니”** <완월회맹연> 92권

34) 이러한 소교완의 심리 상태는 시댁 정씨 부중에 들어온 이후 다음과 같이 신세를 한탄하는 장면에서도 심분 짐작할 수 있다. “호를며 지조는 영설 회문을 묘시호니 무어시 부죽호리오만는 엇디호여 노슈의 부실이 되어 신세 이러듯 뜻 잣디 못호고 어나 씨의 낭미 토기호여 니 쫓줄 펴리오.” <완월회맹연> 45권

35) 심지어 혼인식 날 좌중의 모든 이들은 신부 소교완의 빼어난 자질에 대해 칭찬하면서 정잠의 처복(妻福)에 대해 축하하나 정함과 서태부인은 예의상 온화한 빛을 띠고 있을 뿐 기뻐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모습은 그 자리에 있던 하객들로 하여금 죽은 양부인을 염두에 둔 처사로 받아들이게끔 한다. “좌석의 관광호는 눈이 아즐호고 호형이 분분호여 내부의 처복을 치호호미 즈뭇 요요호디 티부 부부 좌슈우음의 오디 화기를 일치 으일 썬이오 각별 깃썬 빗치 업스니 등빈이 양부인을 싱가고 슬허호는가 녀여 도로혀 적연호디라” <완월회맹연> 3권

36) 소교완의 처소를 찾은 정잠은 다음과 같이 후처인 소교완과 죽은 전처 양부인을 비교하는 가운데 마지못해 동침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신인(소교완)의 쏫 궤뭇들 더호**

구들의 태도에서 자신에 대한 인식이 별로 좋지 않다는 점을 영리한 소교완이 눈치 채지 못했을 리 없다.

한 집안의 구성원이 된 며느리 소교완은 시댁 식구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여러모로 애를 쓰지만 이는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여기서 오는 심리적 불안감은 점차 커지게 되면서 자신도 알 수 없는 폭력의 가해자가 되어간 것이다. 이자염을 향해 이유 없는 폭력을 자행할 때 소교완의 악행을 알고도 짐짓 모른 척하는 정씨 부종의 태도는 그녀에게 있어서 자신을 정씨 가문의 일원이 아닌 외부인으로 여긴다는 심리적 소외감을 안겨 주었을 것이다. 실제로 소교완이 어떠한 악행을 저지르더라도 정씨 부종 사람들은 모두들 뒷수습하기에만 급급하거나 소교완의 악행에 대비해 방어책<sup>37)</sup>을 세우는 등의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특히나 정씨 부종의 여가장인 서태부인은 소교완의 모든 행실을 짐작하거나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바로잡기 위해 소교완을 다그치거나 꾸짖지 않는다.<sup>38)</sup> 누구 한

민 고인(양부인)의 옥 굶터미 더욱 생각이 간절하고 <중략> 뇨도현완을 상하고 현는 미식을 디흐니 결단코 가되 난홀 바를 심각히미 혼놋 박면누들의 용둔흔 현년 만느디 못흐를 곱히 이답고 츠석흐는 스식하여 무익히디라. <중략> 상의 오를시 스스로 헤 오디, 너의 녀관이 부운 굶터는 상봉흔 디 거의 삼스삭의 운우를 합디 으니면 또흔 박디라 원망을 일월 듯하고 오늘 임의 드러왔시니 슬흔 거슬 चु고 잠깐 마음을 곱히미 뜨어서 어려오리오. 하고 **게일이 원비를 느리혀 소시를 잇그러 천만 부득이 동침히미**" <완월회맹연> 3권

37) 화부인은 벽실에 갇힌 이자염이 소교완의 독수로 인해 고초를 당할 것을 미리 알고 유모로 하여금 먹을 것과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갖춰 보내주기도 하며, 또 화재로 인해 죽을 것을 미리 알고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징슈빅(아모 훈염디괴라도 더운 기운이 침노치 못흐는 보비)”을 건네주는 등 이자염의 목숨을 여러 번 구해준다. <완월회맹연> 90-91권

38) <소현성록>에서 며느리 화부인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매섭게 꾸짖는 시어머니 양부인의 모습과 비교해 볼 때, <완월회맹연>의 서태부인은 며느리 훈육에는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정선희, 『가부장제하 여성으로서의 삶과 좌절되는 행복-<소현성록>의 화부인을 중심으로-』, 『동방학』20,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11, 66면 참조.

사람이라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 제지하는 이가 없음<sup>39)</sup>에 소교완은 점차 수위 높은 폭력적인 행동들을 서슴지 않게 된 것<sup>40)</sup>이며 이러한 폭력적 상황이 여러 번 반복되는 동안 그녀는 이제 자신마저도 통제할 수 없는 지경<sup>41)</sup>에까지 이르게 된다. 이렇듯 소교완이 이유 없는 폭력을 자행하게 된 데에는 정씨 가문의 소교완에 대한 무관심과 방임적 태도에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겠다.<sup>42)</sup> 이로 인해 소교완은 극도의 심리적 불안감과 소외감을 경험하고 이러한 자신만의 콤플렉스를 폭력이라는 극단적인 방향으로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소교완의 머느리 이자염을 향한 이유 없는 폭력 행사<sup>43)</sup>는 성장

39) 물론 아들 정인웅이 때때로 소교완의 행동에 대해 간하면서 제어하는 역할을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자신의 피붙이에게서 받는 관심인 것이다.

40) 이후에도 소교완은 머느리 이자염을 후원 벽실에 가두고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베를 짜게 시키는 등 고된 노동을 통해 그녀를 학대하기도 하고 사람을 시켜 이자염이 거하는 후원 벽실을 불태워 죽이려고까지 한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수포로 돌아가자 심지어 자신이 직접 심복 시녀들을 데리고 후원 벽실로 찾아가 이자염을 쇠몽둥이로 죽도록 팬 뒤 칼로 얼굴 가죽까지 벗긴 후 독약을 입에 붓고 온몸을 노끈으로 동여맨 뒤 후원 근처 연못에 처넣는다. <완월회맹연> 91권.

41) “쇼미 또 굶겨 이긋고즈 호미 아니로되 텃성을 회복지 못호미 능히 본인지성을 찾지 어려운지라 편작의 병공과 화택의 신술이라도 쇼미의 병을 곳치기 어려오니 썰니 죽오미 원이로소이다 닌성의 지효 지성을 모락미 아니로되 스스로 띄온 뜻을 제어키 어렵고 죽이고져 의스를 곳치지 못호니 이 엇지 하늘이 아니리오마는” <완월회맹연> 151권.

42) 서태부인을 비롯한 정씨 부중 식구들도 소교완의 악행을 이미 뻔히 알고 있고, 소교완 또한 시택 식구들이 자신의 악행에 대해 눈치 채고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런데도 계속된 소교완의 폭력을 방관만 하고 있으며 소교완 또한 시택 식구들을 의식하면서도 폭력적인 자신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후 남편 정장이 환가한 후 그녀를 다스리나 이 또한 근본적 해결안은 되지 못한다. 소교완이 개과천선은 과정은 3장 서술자 의식을 논하는 가운데 함께 다루기로 한다.

43) 이러한 폭력의 원인을 소교완 자신의 성격적 결함과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실은 <완월회맹연>의 서술자가 당대의 이념적 논리를 고려한 의도된 설정이었다는 점은 3장에서 상술한다.

과정에서 받아들인 심적 스트레스로 인한 성격적 결함에서 그 1차적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이후 후처라는 지위에서 오는 심리적 불안감과 더불어 시댁 식구들로부터 받은 심리적 소외감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 2) 처처, 처첩, 첩첩 간의 폭력 양상<sup>44)</sup>

일반적으로 국문장편 고전소설에서 보이는 처처, 처첩, 첩첩 간의 갈등 양상 가운데 폭력이 드러나기도 하는데, 기존 연구들은 그러한 폭력 발생의 근본적 원인을 ‘남편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한 쟁총’으로 귀결시킨다. 그러나 <완월회맹연>에서 드러난 처처, 처첩, 첩첩 간에 벌어지는 폭력 가운데에는 ‘쟁총’이 갈등 발생의 계기로 작용할 수는 있어도 그것이 구체적인 폭력으로 나타날 때의 정황까지 포괄하기에는 부족한 상황도 포착<sup>45)</sup>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 2-1) 후처 호부인에 대한 본처 여부인의 폭력

일반적으로 국문장편 고전소설에서 보이는 ‘본처의 후처에 대한 폭력 행사’는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상정해 볼 수 있으나 우선되는 두 가지로

---

44) 다른 국문장편 고전소설들에 비하면 <완월회맹연>에서는 이러한 양상이 두드러지지 않는다. 오히려 처첩의 사이가 친자매처럼 그려지는 내용이 더 풍부하다. 예를 들면 장성완과 소채강, 정월염과 양혜완, 이자염과 한난소 등은 처첩 간임에도 여느 친자매 이상의 친밀감과 유대감을 보인다. 아내가 남편에게 질책을 받게 된 상황에 처할 때, 곁에서 첩이 처를 위로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한다. 또한 부덕한 첩이 처를 시기하여 질투할 때에도 오히려 이해심 많은 처가 첩의 행위를 용서하는 상황이 포착된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본고에서 다루려는 처처, 처첩, 첩첩 간 드러나는 폭력의 양상은 그 발생의 배경 및 원인 등에서 다른 점이 발견된다.

45) 2-2)장에서 ‘장세린의 본처인 여씨가 첩 정성염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과 2-3)장에서 ‘정인성의 2첩인 양일아가 1첩인 한난소를 향해 폭력을 행하는 장면’이다. 이에 대해선 각 장에서 논한다.

는 첫째,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위협받는 본처의 자리를 굳게 지키기 위함이다.<sup>46)</sup> 그러나 본고에서 다루려는 폭력은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이유에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존 작품들의 내용과 변별되는 지점을 갖는다. 흔히 쟁총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 내용이지만 그것이 ‘남편의 사랑’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사랑’을 얻기 위한 쟁총이라는 점에서 기존 연구에서 보이는 이야기들과는 차이를 보인다. 이는 고부간의 갈등이 통념으로 받아들여지던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염두에 둘 때에도 특징적인 점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쟁총 가운데 발생하는 폭력이 어떠한 갈등 상황 하에 구현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여부인<sup>47)</sup>은 남편 교한필이 후처 호부인을 맞이하자 그녀를 괴롭히는 가운데 폭력을 서슴지 않는다. 예컨대, “녀시의 간포 한약하미 스람이 아디 못히고 남이 보디 못히는 ㅅ의 다드라는 호시를 참육 즐기하여”<sup>48)</sup> 자신의 유모와 갖은 모략을 꾸며 호부인을 없애려고 한다. 이후에도 호부인의 큰아들을 몰래 빼돌려 하인 장손탈로 하여금 강에 갖다버리게 하고, 호부인이 낳은 둘째 아들을 자기가 낳은 아이로 꾸민 뒤 장손탈이 납치해 온 여아<sup>49)</sup>를 호부인의 소생으로 삼는 등 천륜을 거스르는 범죄를 저지른

46)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해야만 본처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제시한 두 가지 이유가 비슷한 내용으로 묶여야 할 것 같지만 실상,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과 는 별개로 본처의 자리를 후처에게 빼앗길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 둘의 구분은 필요 하다.

47) <완월회맹연>의 여성 인물 중 동명이인의 ‘여씨’가 두 명 등장한다. ‘교한필의 부인 여씨’와 ‘장세린의 부인 여씨’이다. 여기서 다룰 여씨는 교한필의 부인이다. 논의의 편의상 장세린의 처 여씨와 구분하기 위해 교한필의 처는 ‘여부인’으로 명명한다. 그녀는 국구(國舅) 여형수의 딸로 교한필과 혼인 후 남편의 후처 호부인을 무단히도 학대 하며 호부인이 낳은 사내아이를 다른 데서 납치해온 여아와 바꿔놓는 등 갖은 폐악을 저지른다.

48) <완월회맹연> 45권.

49) 이 여아는 본래 처사 주양의 딸 **주성염**이다. 주양은 유부인을 아내로 맞아 슬하에

다. 또 자신의 시녀에게 변용단을 먹여 호부인으로 꾸며 외간 남자와 몸을 맞대고 누워있는 모습을 연출하게 하는 등 호부인에게 여러 가지로 불리한 정황을 만들어 그녀를 교씨 집안에서 축출하는 데 성공한다.

여부인의 호부인에 대한 폭력은 남편 교한필의 사랑을 차지하려는 이유 때문은 아니다. 교한필은 부귀와 권세를 좇는 인물이다. 본처 여부인의 친정이 지닌 권세와 부귀를 중히 여기는 가운데 여부인과 호부인을 대할 때에도 엄격한 구분을 두었으며<sup>50)</sup> 본처 여부인에게로 이미 마음이 기울어 있었다는 점에서 여부인의 쟁송 목적이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호부인이 축출된 이후에도 여부인의 폭력은 교숙란(주성염)을 향해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음을 볼 때, 이는 본처의 자리를 지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도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여부인의 폭력은 어디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까? 이를 위해 먼저 여부인과 호부인 간 갈등 발생의 배경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부인이 후처 호부인에 대한 심리적 갈등을 키우게 된 시발점은 바로 ‘시어머니의 며느리에 대한 차별된 사랑’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아래 인용문을 보자.

안성공췌 부마의 망우를 저버림과 호시를 무고히 거두디 말고즈 하물 기

---

4남 2녀를 두고 지내던 중 늦둥이 주성염을 낳는다. 그러나 유부인이 5~6개월 된 주성염을 데리고 아버지 병문안 차 친정으로 가는 도중 장손탈이란 도적에게 딸을 뺏기게 된다. 이후 교한필의 처 여부인이 장손탈이 납치한 주성염을 데려와 호부인이 낳은 둘째 아들과 바꾼 후 그녀의 아들을 자신이 낳은 아이로 하고 주성염을 호부인이 낳은 딸이라며 안성공주와 남편 교한필을 속인다. 그 후로부터 주성염은 교한필과 호부인의 딸 **교숙란**으로 살아가게 된다. <완월회맹연> 45권

50) “(교한필은) 세움을 둠이 너기고 부귀를 흠모호는디라. 호시의 지피 초출호를 이듬치 아니미 아니로디 녀시의 권위 당당호를 기다하여 범스의 공경 등디하미 호시로 비하미 천디 스히 갖트니” <완월회맹연> 45권

탄하여 통한하를 마디 안나 티냥 아즈를 티하여 호시를 버리디 못홀 벼를 이르더니 호쥬스의 습기를 맞디 못하여서 안성휘 기세하니 교한필이 쏘한 거창을 당하니 공쥬 쏘한 호가 혼스를 일우디 못하나 심니의 호시를 연측여 금뵝으로써 즈뢰하를 막디 아니 하더니 훌훌한 광음이 살 갓타여 교부마의 삼상을 맞즈미 교한필이 결복하여 오라디 아나셔 용방의 승영하니 묘네 화문과 영통 부귀 더욱 혁혁하고 녀시 이팔디세를 넘디 못할 벼로 팔좌의 존과 너즈의 귀를 당하여 교우한 괴우이 동셔의 거칠 것 업거날 공쥬 간간이 호가 정혼디스를 일갈아 버릴 쏘지 업스를 그옥이 원한하<sup>51)</sup>

교한필의 아버지인 교성은 아들의 배필로 처음엔 친구 호규의 딸을 정했으나 호규가 뜻밖에 병에 걸려 죽자 “본디 문희 녕낙하여 친척이 영정하고 가세 청빈”<sup>52)</sup>했던 호가와 의 혼약을 파기하고 국구(國舅) 여형수의 딸 여부인을 며느리로 맞아들인다. 이에 안성공주는 늘 아들 교한필에게 호부인을 저버리지 못할 것을 누차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녀의 처지를 딱하게 여기며 생활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물질적 후원을 아끼지 않는다. 이후 남편 교성이 죽자 안성공주는 항상 염두에 두었던 호부인을 아들 교한필의 후처로 맞아들이게 된다.

이 과정에서 여부인은 자신의 시어머니인 안성공주가 늘 호부인에 대해 연연해하며 남편 교한필에게 그녀를 후처로 맞아들여야 한다는 뜻을 재차 강조하자 그때부터 호부인을 향한 심리적 갈등을 싹틔우게 된다. 그러나 시어머니 앞에서는 “녀후의 투악과 측탄의 흉교를 길이 등심”<sup>53)</sup>에 감출지언정 “뵝그로 혼연이 투귀 업스를 낫토고 덕이 잇시믄 즈랑하여 호시의 슬픈 정스를 위하여 츠탄하고 특별이 교한필을 권하여 지실노 거두

51) <완월회맹연> 45권.

52) <완월회맹연> 45권.

53) <완월회맹연> 45권.

를 이르”<sup>54)</sup>는 표리부동한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여부인의 태도는 투기하지 않는 아량이 넓은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시어머니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으려는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시어머니 안성공주는 이러한 여부인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그녀 보다는 호부인에 대한 애정이 더욱 각별함을 보인다. 여부인이 혼쾌히 호부인을 받아들여지는 말에 안성공주는 “헝넨헝를 니괴디 못하여 즉시 호구의 길일을 지축하”<sup>55)</sup>고 속히 길일을 택해 혼례를 치른다. 이후 호부인이 현구고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보인 “공쥬 심니의 익련하미 친녀 갖타나 녀시 불평하미 잇실가 과이하물 닛타니디 아니호고”<sup>56)</sup>라는 부분에서도 그러한 안성공주의 두 며느리에 대한 차별적 사랑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며느리 여부인을 의식하는 것 자체가 이미 여부인보다는 호부인에게 마음을 기울이고 있다는 의미로 읽히기 때문이다.

한편 여부인과 호부인 간 갈등의 원인을 ‘남아선호사상이 주는 문제점’으로 파악하고 있는 논의<sup>57)</sup>가 있어서 이에 대한 검토를 요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여부인은 자신이 아들을 낳지 못한 것 때문에 호부인에게 폭력을 행사했던 것은 아니며 오직 시어머니로부터 사랑과 관심을 독차지하려는 이유에서였다. 또한 교한필과 안성공주가 남아를 선호했다는 내용은 작품 내에서 찾아볼 수 없었으며<sup>58)</sup> 오히려 여부인의 세 아들보다 여아인

---

54) <완월회맹연> 45권

55) <완월회맹연> 45권.

56) <완월회맹연> 45권.

57) 이은경, 「<완월회맹연>의 인물 연구」, 충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116면에서 “여씨는 자신이 아들을 낳지 못하는 불안감에 호씨를, 주성염을 그리고 더 나아가 교부라는 한 가문을 파멸의 위기까지 몰고 가게 된다. 남아선호사상이 주는 문제점이 결국은 한 가문을 위기에 빠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58) 물론 당시의 시대적 정황상 남아선호사상이 팽배해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러한 사상을 여부인과 호부인 갈등의 궁극적인 원인으로 다루기에는

교숙란을 더 사랑하고 있음<sup>59)</sup>을 볼 때 남아선호사상이 여부인과 호부인 갈등의 궁극적 원인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만약 ‘남아선호사상’이 여부인이 저지른 폭력의 근본 원인으로 작용했다면 당시 남아선호사상에 입각한 교한필과 안성공주가 왜 그토록 여부인의 아들들보다 여자인 교숙란에 대해 더 각별한 애정을 보였는지에 대한 의문은 풀리지 않는다.

요컨대 여부인과 호부인의 갈등 발생은 남아선호사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며느리에 대한 편애’에 따른 것임을 알 수 있으며 그러한 갈등 상황이 극도에 다다라 폭력으로 표출된 것은 작품 내 여러 가지 정황상 ‘시어머니인 안성공주의 관심과 사랑을 독차지하려는 여부인의 심리적 욕망’에서 그 궁극적 원인을 찾을 수 있겠다.

## 2-2) 첩 정성염에 대한 본처 여씨의 폭력

이 장에서는 본처인 여씨<sup>60)</sup>가 첩 정성염을 향해 폭력을 가하는 상황이 포착된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인물 관계에서 보여주는 일련의 사건들을 처첩갈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그 갈등의 원인을 남편의 사

---

작품 내 등장인물들이 보이는 행동과는 다소 맞물리지 않는 장면들이 포착되기에 설득력이 떨어진다.

59) 여부인은 안성공주의 사랑을 받기 위해 잉태하기를 바라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거짓으로 임신한 체하며 유모 노씨로 하여금 신생아를 구해오도록 한다. 때마침 이웃 마을에 어떤 유생의 처가 쌍둥이를 낳고 바로 죽자 노씨는 그 중 한 아이를 데려온다. 이후 여부인은 같은 방식으로 두 명의 남아를 더 데려와 모두 세 아들을 자기 소생으로 만들어 시어머니와 남편을 속인다. 그러나 안성공주 모자가 자신의 세 아들보다 교숙란을 더 예뻐하자 이에 또 다시 교숙란에 대한 폭력을 서슴지 않는다. <완월회맹연> 45권.

60) <완월회맹연>에서는 표제어로 추출된 여성 인물 중 동명이인의 ‘여씨’가 두 명 등장한다. ‘교한필의 부인 여씨’와 ‘장세린의 부인 여씨’이다. 여기서 다룰 여씨는 장세린의 부인이다. 그녀는 국구(國舅) 여형수의 장자인 여원홍의 딸로 장세린과 혼인 후 갖은 폐약을 부러 친정으로 쫓겨나는데, 남편 장세린이 정성염을 첩으로 받아들인다는 소식을 듣고 또 다시 시택으로 와 난동을 부리다가 후원 벽실에 갇히게 된다.

량을 빼앗기 위한 ‘쟁총’에 두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기존 연구에서 보이는 쟁총에 대한 개념이 좀 더 구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바 여기서 다룰 처첩간의 갈등에서 비롯된 폭력은 엄밀히 말해 쟁총의 성격과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판단에서이다.

쟁총이란 ‘서로 사랑을 받기 위해 다투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엔 어떤 측면에서는 사랑받을 일말의 희망적인 의미가 담겨있기도 하다. 즉 쟁총의 대상(남편)이 존재할 때, 이를 두고 상대방과 서로 싸우는 과정(처첩갈등)에서 어느 한쪽의 승리로 다른 한쪽의 패배자가 죽거나 축출될 경우 살아남은 자가 ‘남편과의 온전한 사랑을 성취할 수 있다’는 전제가 내포된 단어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대상을 놓고 서로 경쟁 상대가 될 정도의 비등한 관계 하에서만 쟁총이란 어휘가 적합할 듯하다.<sup>61)</sup>

그러나 여기서 다투려는 첩에 대한 본처의 폭력 상황은 그 원인을 쟁총으로 다루기엔 폭력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포괄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여씨는 이미 신혼 초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남편의 사랑을 단 한 차례도 받아본 적이 없었으며<sup>62)</sup> 지금껏 자신을 대면하기조차 험오스러워하던 일관된 남편의 태도<sup>63)</sup>를 통해 이미 남편 장세린의 사랑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쟁총이란 여씨에게 있어서 무의미한

---

61) 예를 들어, <사씨남정기>에서도 본처 사씨를 축출한 후 교씨가 들어와 그 자리를 차지한다. ‘쟁총’ 과정에서 승리한 교씨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도 출산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렇듯 쟁총이란 남편의 사랑을 다투어 승리할 경우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는 상황까지 전제되어야 하는 개념인 것이다.

62) 여씨가 죽을 때 팔에 행혈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점에서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여씨가) 남망의 부모를 디혀여 만단 비스를 베풀고 비상 잉혈을 뵈고 늣기를 마지 아니니 녀공 부뷔 구곡이 쫓쳐지나” <완월회맹연> 167권.

63) 신혼 초에 신방에 들어가지 않는다. <완월회맹연> 49권 / 장헌 부부가 억지로 아들 장세린을 여씨 처소에 집어넣고 문을 자물쇠로 잠그나 벽을 박차 부서뜨린 후 도망친다. <완월회맹연> 50권.

것이다. 자신이 상대방을 제거하거나 상대방이 축출된다 하더라도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변함없는, 변치 않을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승부가 정해진 싸움이라는 의미에서 쟁송을 폭력 발생의 원인으로 보기에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폭력 발생의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앞서도 언급했듯이 <완월회맹연>에서 여성 인물 간에 벌어지는 폭력의 양상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폭력으로 인해 상대방이 피해를 입는 경우로만 나타난다. 따라서 폭력 상황으로까지 치달는 행동을 하게 된 여씨의 심리적 갈등<sup>64)</sup>부터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씨는 당대 세력이었던 국구 여형수의 장자 여원홍의 딸로 추악한 외모<sup>65)</sup>에다가 난폭한 성격을 지닌 인물이다. 그녀는 장헌의 막내아들인 장세린<sup>66)</sup>과 혼인하게 되는데 혼례날 신랑이 예식만 치르고 속히 자리를 피하자 시댁 식구들 앞에서 온갖 패악을 부리며 욕설을 퍼붓는 등 갖 시집

64) 물론 여씨의 본성이 천성적으로 난폭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심리적 갈등의 모색이 불필요할 듯하지만 여기서 살펴려고 하는 것은 폭력의 가해자로서의 본체인 여씨가 피해자인 첩 정성염을 어떤 심리적 동인에 의해 폭력적으로 대하는지에 관해서이다. 따라서 그녀와 관련된 서사적 맥락 속에서 여씨의 감정 상태를 살피는 작업이 중요하다.

65) 혼례 날 장세린이 잠깐 본 여씨의 추악한 외모를 묘사한 부분이다. “냥 신인이 네비를 낄을시 공지(장세린) 전혀 무심하여 신부(여씨)를 살피미 업더니 홀연 **고이훈 습 소릿 귀가의 들니던 완연이 녹월염련의 장기를 메운 쇠 습 소리 갓튼 바의 족적이 용돈하고 난잡하여 정함 옥난이 움죽이고 합환교석의 밀니여 정제함을 엿지 못하고 보정 괴회함이 밋친 듯출 닛글며 스오나온 일희를 붓드러심 궂튼물** 의아하여 혼 번 빵광을 흘니 쓰미 허다 시인 **우두나출**을 전춘 후응하여 작성을 가리고 면스를 쾌히 벗기지 아니실 썸 아니라 그 일신 두면을 다 보옥으로 엮고 금쥬로 꾸며 선풍이 도요하고 보치 휘휘하나 **그 념호한 테계와 혐괴호 상모는 이 구온던 더욱 표표하여 흠참하고 취부함을 비할 곳이 업스니** 세간의 엿지 이긋튼 작인과 이긋튼 흉상이 이 시를 뜻하여시리오.” <완월회맹연> 48권

66) 장헌과 박씨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막내아들이다. 그는 경솔한 아버지 때문에 원치 않는 결혼을 하게 된다. 장헌이 여원홍의 권세와 부귀만 보고 그 딸인 여씨와 영접결에 혼약을 해버린 결과이다.

온 신부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서슴지 않고 보여준다. 이후에도 신랑 장세린이 신혼 첫날밤부터 외박하고 자신을 돌아봐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시대 어른들에게 문안인사조차 드리지 않는다.<sup>67)</sup> 이렇듯 여씨는 시집온 첫날부터 장씨 부중의 큰 골칫거리가 된다. 그럼에도 오로지 자신의 감정만 앞세우고 자신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주위 사람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던 여씨는 결국 장씨 부중 그 어느 누구에게도 동정 받지 못하는 신세가 되고 친정으로 쫓겨나는 지경<sup>68)</sup>에까지 이르게 된다.

이후 장씨 부중에서는 장세린과 정성염의 혼사를 성사시키기 위해 만방으로 애를 쓰고 드디어 정염의 허락 하에 혼인에 성공한다.<sup>69)</sup> 친정에서

---

67) 여씨가 신혼 첫날밤을 꼬박 뜯눈으로 지새우며 신랑 장세린을 기다리는 가운데 보이는 심리 상태이다. “어시의 신뵈 신낭이 드러오기를 현망호는 눈이 뿌러지고 심신의 불이 날를 씨닷지 못호디 맞춘니 족적이 돈연호니 헛도이 긴 밤을 다호여 원문의 오경 북이 옥누의 계성을 조츠 분분호고 <중략> 탁성당시언정 건곤이 상친의 음양이 도화호른 천니의 멀오미 잇서 무산 초협의 운위 협흡호는 녁술 버라도 못호고 신혼 초일의 박멸호는 뜻을 낫토야 일실 상디도 고염호니 빵금요석을 병설호여시나 군즈의 조취 머러시니 녀시 불인이 홀노 밤 지너를 슬허 달야토록 상 우회 오로지 아니호고 기다리는 뜻이 착급호다가 임의 바라미 어기고 계스제인이 계성을 인호여 니러나니 무류코 분함과 슬프고 노호오미 좌우로 병출호여 능히 소리 나를 씨닷지 못호고 읍읍 통열호여 원망과 욱설이 첩첩호여 그 학이 참측호를 비홀 곳이 업슨지라. 유아 등과 스지 양낭이 절박 초민호를 니기디 못호여 천인 만단으로 불가호를 간호고 구고 귀 신성을 아니치 못호리라 호디 녀시 노한과 비분을 억제호여 등회의 날 길 업슨 고로 침금의 머리를 박고 누어 울기를 마지 아니 호니 신성을 불참호디 당공과 연분인이 굿터여 못지 아니호고 박시는 도로혀 아니 비는 바를 식환이 녀이더라.” <완월 회맹연> 49권.

68) 장세린이 정염의 딸 정성염에 대한 상사병이 심해져 생사를 오가는 상황이 되자 장씨 부중 사람들은 여씨를 당분간 친정에 보내기로 한다. <완월회맹연> 50권 / 이후 51권에서 여씨가 다시 시택으로 돌아오지만 남편이 정성염을 첩으로 받아들여려는 사실을 알고는 또 다시 발악하여 결국 친정으로 쫓겨나게 된다.

69) 장세린이 우연한 경로로 정염의 딸 정성염의 화상(畫像)을 입수하게 되면서 그녀에 대한 상사병으로 날이 앓다가 사경을 헤매 정도에 이르게 된다. 이후 우여곡절 끝에 정염의 허락이 떨어지자 장세린은 정성염을 첩으로 맞아들인다.

지내던 여씨가 다시 시댁 장씨 부중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바로 ‘남편 장세린이 정성염을 첩으로 맞이해 화목하게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이다. 이성을 잃은 여씨는 시댁 문턱에서부터 “발악하고 들너들미 네 슈를 베프지 아니코 만단 욱설이 정소저를 들먹여 미달긋튼 요식을 고흥하여 저의 식이 업스물 핑계하여 박디하고 덕을 공경치 아닛는다”<sup>70)</sup>라고 하면서 “혹 욱세하고 혹 원망하여 정가 요인을 좁아 티익지의 좁고 정염의 머리를 동시의 들며 구족을 섬멸하렷노라 꺾악지설”<sup>71)</sup>을 그치지 않는다. 장세린은 속히 정성염을 친정 정씨 부중으로 피신시키고 급기야 집안 시녀들로 하여금 발광하는 여씨를 붙잡아 후원 벽실에 가두게 한다.

후원 벽실에 갇힌 여씨는 이후 정성염이 장씨 부중에서 정월염 대신 시부모를 봉양하며 집안 살림을 잘 꾸리고 있다는 소식<sup>72)</sup>을 듣자 또 다시 마음속에 이는 분노를 참지 못하게 된다. 결국 여씨는 “흔번 쾌히 정시를 난타하고 본부로 도라가고저 하여”<sup>73)</sup> 후원 벽실에서 탈출을 감행하는 도중 팔다리가 부러지는 증상을 입는다. 속히 응급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그녀의 맘속엔 오로지 정성염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 있던 까닭에 부러진 다리를 질질 끌고 그 처소 앞에 다다른다.

당장에 쳐들어가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고 상황을 엿보던 여씨는 “목난정”<sup>74)</sup>에서 남편 장세린과 처 정성염의 정겨운 대화소리를 듣게 된다. 이후 다음과 같은 상황으로 이어진다.

70) <완월회맹연> 162권.

71) <완월회맹연> 162권.

72) 이때 소고완이 병환 중에 있던 까닭에 장씨 부중 맡으며느리인 정월염이 어머니 소고완의 병간호 차 친정에 잠시 가 있던 상황이었기에 장씨 부중 살림을 정성염이 대신 맡고 있었다. <완월회맹연> 167권.

73) <완월회맹연> 167권.

74) 시댁 장씨 부중에 있는 정성염의 처소. <완월회맹연> 167권.

녀시 이를 보미 복통이 발하여 경외의 너드라 좃치고져 시프나 디스를  
도모하려 규시하더니 혹시(장세린) 만면 희색으로 천천이 의대를 글너 상상  
요금의 나아가며 축을 멀히고 쇼져(정성엄)를 청하여 나위의 나아가미 공경  
중디히미 교철의 합흔지라 녀시 츠경을 보미 더욱 분노 뵈당이나 하여 브지  
불각의 드리드라 정시를 박살코져 하나 혹스의 이시를 써러 십분 참고 창의  
의셔 규시하더니 계성이 정동하미 부뷔 혼가지로 니러 소세하고 혹시 정기  
관하여 몬져 정당으로 향히미 쇼져 미조츠 관피를 정제하여 유모 시으로 더  
브러 신성의 나아가거늘<sup>75)</sup>

장씨 부중에 시집온 첫날부터 자신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남편 장세린과의 정겨운 대화를, 다정한 사랑을, 첩 정성엄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누리고 있는 모습에서 여씨는 과연 어떠한 감정을 경험했을까? 본처인 자신은 그저 허울뿐이고 남편의 사랑은 오로지 첩 정성엄에게로만 향하는 이 상황 속에서 여씨가 선택해야 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한 밤중부터 새벽닭이 울 때까지 하룻밤을 꼬박 새우며 첩 정성엄의 처소를 뚫어져라 응시하던 여씨는, 어쩌면 신혼 첫날밤 남편이 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며 뜬눈으로 지새워야 했던 그날의 가슴 아픈 기억을 반추하면서 내부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분노의 극한을 경험했던 것은 아닐까? 이러한 여씨의 심리적 갈래가 귀결되는 지점은 곧 본처인 자신을 저버리고 첩을 택한 남편 장세린에 대한 복수심이며 이러한 감정의 폭발이 곧 남편이 그토록 사랑하는 첩 정성엄에 대한 폭력으로 구체화되고 있음을 다음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녀시 갈호 뵈튼 소퇴를 벽벽 뵈치 지락고 썩여드러 검고 프튼 큰 손으로  
쇼져의 봉관을 벗기고 구름 뵈튼 머리를 풀쳐 손의 잡고져 하니 길과 ㄱ죽

75) <완월회맹연> 167권

홀췌어나 뿔그러워 손이 절노 풀니고 잡히지 아니니 익의 대로 하여 눈을  
독히 뜨고 니를 굴며 드라드러 두 볼로 적어 츠니 경영호 몸이 더지이여  
브드치니 고은 머리 브티잇는 소퇴 직곡직곡 호논지라. <중략> 말니고져  
하미 녀시 볼로 츠 밀치고 쇼저의 나삼을 잡아 옥저 又튼 몸을 드리쳐 잡고  
업지러티 등의 올라 좃뵈고져 하니 쇼제 처음은 천만 무심 중의 저의 손의  
잡히여 상흔 비 되여시나 임의 작변호는 심술을 씨드라시니 술연이 저히 독  
슈의 유체를 상히오리오. 몸을 7바야이 췌혀 소두를 헛슬고 의상을 정돈코  
져 홀시 녀시 물너셔셔 불양호 목을 기우려 그 저동을 보고 일장을 즐미하  
고 다시 드리드라 그 몸을 안아 나리치니 쇼제 비록 표일 민첩하나 저 흥흔  
손뻐를 엇지 먼하리오 속결업시 구오려 난하의 노력지니 질척하미 되지라  
녀시 승흥하여 벽상의 걸닌 궤도를 췌혀 누리드라 지르코져 하니<sup>76)</sup>

현재 여씨는 후원 벽실에서 탈출을 감행하다가 팔다리가 부러진 심각한 상태이다. 게다가 이러한 몸 상태로 정성염의 처소 앞에서 뜬눈으로 밤을 꼬박 지새운 상황이다. 이미 여씨의 건강 상태는 정상인으로도 버틸 수 없는 지경이었음을 짐작해 볼 때, 인용문에서 펼쳐지는 폭력의 상황은 단순한 의미의 그것이지 아니라 목숨을 건 여씨의 마지막 처절한 몸부림이라 할 수 있다. 이후 여씨는 치료도 받지 못한 채 또 다시 후원 벽실에 갇히게 되는데, 결국 사경을 헤맬 정도로 건강이 악화돼 친정으로 돌아간 사흘 만에 생을 마감하게 된다.<sup>77)</sup> 죽는 그 순간까지 장씨 집안에 한을 품었던 그녀는 죽어서도 귀신이 되어 시아버지였던 장헌을 괴롭히는가 하면 남편 장세린을 죽이려고까지 한다.<sup>78)</sup>

76) <완월회맹연> 167권.

77) “시의 녀츄밀이 녀으를 시러 도라오니 <중략> 삼일 후 병세 익중하여 업연 당셔홀시” <완월회맹연> 167권.

78) 죽은 여씨는 남편 장세린에 대한 복수심을 품고 귀신이 되어 그를 찾아가 다음과 같이 꾸짖는다. “세린아 네 날로 더브러 향녀의 의를 두어 결발의 중하미 잇거늘 필뵈

요컨대 지금까지 살펴본 여씨의 심리적 갈등과 거기서 비롯된 폭력 상황은 자신을 무참히 버리고 첩을 택한 데 대한 남편 장세린을 향한 복수심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남편이 그토록 사랑하는 정성염을 없애야만 그들의 행복을 깨뜨릴 수 있다는 여씨의 심리적 강박증이 폭력으로 표출된 것임을 알 수 있다.

### 2-3) 1첩 한난소에 대한 2첩 양일아의 폭력

이 장에서의 폭력 상황은 첩첩 간에 벌어진다. 폭력 당사자는 나중에 들어온 첩 양일아와 그보다 먼저 들어온 첩 한난소로, 양일아의 일방적인 폭력으로 한난소가 피해를 입는 상황을 보여준다. 폭력 발생의 원인은 남편 정인성의 사랑을 얻기 위한 쟁충인 것 같지만 기실 한난소에 대한 양일아의 갈등의 시발점은 그보다 더 오래 전이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양일아의 한난소에 대한 갈등은 그녀들의 뒤바뀐 운명이 제자리를 회복하면서부터 비롯된다. 양일아는 본래 한씨 부중 주태부인<sup>79)</sup>의 딸 한씨의 소생이었으나 한씨가 양일아를 낳은 후 곧 세상을 떠나자 주태부인은 사위에게는 산모와 아이가 모두 죽었다고 한 뒤 하나밖에 없는 핏줄인 양일아를 곁에서 키우기 위해 양아들 한제선과 며느리 영능공주가 낳은 딸 한난소와 바꿔치기 한다. 주태부인은 시녀를 시켜 한난소를 죽이라고 지시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한난소는 정씨 부중의 서소랑에게서 양육된다. 이후 부마 한제선은 현재 자신이 키우고 있는 아이가 친딸이 아님을 알게 되고 자신의 딸 한난소를 되찾게 된다.<sup>80)</sup> 뒤바뀐 채 자라던 두 여아는 본

---

요식의 흑흑여 **내 이시덕 요녀에게 방희로울가 흑여 맞출너 죽이니 살인대살을 네 엇지 면히리오** <중략> **금야의 너를 죽이려 왔더니**” 이때 장세린은 부적 덕분에 귀신 여씨로부터 목숨을 부지한다. 이후 귀신이 되어 구천을 떠돌던 여씨는 장현이 자비를 들여 혼령을 위로하는 제사를 지내자 그간의 한을 풀다. <완월회맹연> 173권

79) 주태부인은 한후의 후처로 한씨 부중에 들어간다.

래의 자리를 회복하지만 부마 한제선의 딸로 부귀영화를 누리던 양일아는 그때부터 자신의 군주자리를 빼앗은 한난소에 대한 갈등의 싹<sup>81)</sup>을 틔우게 된다.

그 후 양일아는 체찰사의 임무를 마치고 경사로 돌아오는 정인성의 모습을 보고 매료돼 그와의 혼인을 꿈꾼다.<sup>82)</sup> 그러나 자신의 갈등 상대인 한난소가 정씨 부중에서 지낼 당시, 정인성과 사통(私通)했다는 소문<sup>83)</sup>으로 인해 그의 첩으로 먼저 들어가게 되자 양일아의 한난소에 대한 심리적 갈등은 더욱 증폭된다. 이에 양일아는 외할머니 주태부인을 부추겨 정인성과의 혼인을 추진하게 되는데 결국 한난소 다음으로 정인성의 첩이 된다.<sup>84)</sup>

첩이 된 양일아는 정인성과의 사랑을 꿈꾸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소교완의 힘을 빌어 그와의 합방을 이루게 된다.<sup>85)</sup> 이후 정인성을 두고 한난

80) <완월회맹연> 40권.

81) “주시(주태부인) 손오의 말을 드르미 더욱 분후를 니기디 못후여 한이 반히미 춤을 길히 업스디 닷 삼을 곳이 업서 혼갓 양오(양일아)를 붓들고 우레 궤치 통곡후니 양인(양일아) 또한 성시를 밧고고 턴눈을 어즈러일 바는 슬허 아니코 제 몸이 태산의 의디를 일허 텨가디업의 존귀를 일코 군주 위호를 헛도이 일허 양가 무모이 되물 설워 역시 조모를 붓들고 울기를 마디 아니 후니” <완월회맹연> 40권.

82) <완월회맹연> 83권, 102권.

83) 정인중이 형 정인성을 모함하기 위해 짠 계략. 정인성과 한난소가 사통해 신물까지 주고받은 사이라는 거짓 소문을 퍼뜨려 한난소가 우물에 빠져 죽으려고까지 했던 사건. <완월회맹연> 38-39권.

84) 한씨 부중의 주태부인은 소교완의 이모이다. 주태부인은 외손녀 양일아가 정인성을 한 번 본 이후로 상사병이 나자 소교완과 결탁하여 양일아를 정인성의 첩이 되게끔 여러 가지 흉계를 꾸미는데 결국 성공한다. <완월회맹연> 101-108권, 120권, 124권, 127권.

85) 양일아는 정인성과의 합방을 위해 소교완과 짜고 병환이 깊은 것처럼 식음을 전폐한다. 이를 핑계로 소교완은 정인성에게 양일아와의 동침을 명하는데 그는 양일아 병세를 보아 동침하겠다고 하여 소교완의 화를 돈운다. 이때 소교완이 독약 그릇을 내놓으며 마시라 하자 정인옹이 형 대신 독약을 마시게 되고 정인성은 동생이 자신 때문

소에 대한 양일아의 꺾박은 계속되는데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폭력 상황이 발생한다.

독혼 의지 불불하니 밤 들기틀 기다려 각당이 다 잠든 후 손의 첩편을 들고 용악하여 퀘운누의 나아가니 축을 쓰고 문호를 다 안호로 걸고 상하의 줍이 깃헛더라. 손을 너허 창을 열미 나는 드시 드러가 바로 균주의 침상을 향하여 달녀드니 그 세 풍우 두고 식험하미 호표 식량 되더라. 분녀하여 니불을 벗기고 혼 띠의 좃치고져 하더니 균취 몽니의 놀나 씨다라 형세 도치 아니를 보고 급히 의과를 꺾초고져 하다가 밋디 못하여 금금으로 몸 짝기틀 겹겹이 하여시니 양시 밋쳐 벗기디 못하여 힘난하며 일변 첩편을 드러 두다리기를 굿치지 아니하니 <중략> 양시 변야호로 분녀하여 균주를 난타하여 혼 띠의 맞고져 하더니 유모 시으 등이 좌우로 붓드러 울고 말니 고져 하나 양시 좌툽우들하여 모든 시녀를 다 첩편으로 두다려 쫓고 균주의 덤흔 니불을 벗기고져 하더니<sup>86)</sup>

정인성이 자신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처 이지염과 첩 한난소의 처소를 오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던 양일이는 위의 인용문에서와 같이 모두가 잠든 깊은 밤을 타 한난소의 처소에 쳐들어가 첩편으로 그녀를 때리는 폭력을 행사한다. 다행히 한난소가 이불을 겹겹이 두르고 있어서 심각한 지경까지 이르지 않는으나 그 때리는 형세로 보아선 단때에 충분히 죽을

---

에 위태로운 지경에 처하자 소교완의 명을 지체 없이 받아들여 양일아와 마지못해 동침한다. “이제 상세(정인성) 으(정인웅)의 음독하를 보고 더경 망극하여 머리를 두다려 금야의 미화당(양일아 처소)의 누으가 저의 병지경중을 볼 것 업시 비상 흥점을 업시 하리이다 일겻하니 효순지절이 동인심이라 부인이 노를 잠깐 두루혀 굶오디, 오 날부터 미화당의 숙침하여 비홍이 업슨 연후의야 도히 더면하리라 하고 스하니 <중략> 고두 슈명하고 이날 죽기를 무릅써 미화당의 누으가 운우를 널우혀 음녀의 원한을 푸니 <완월회맹연> 130권.

86) <완월회맹연> 131권.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다. 양일아가 그렇듯 한난소를 난타하고 자신을 말리는 모든 시너를 좌충우돌하여 첩편으로 두들겨 쫓아내면서 한난소가 덮고 있는 이불을 벗기고자 하는 찰나 정인성이 등장해 폭력 상황은 일단락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양일아의 한난소를 향한 폭력은 그 원인을 쟁충으로 다루기에는 그 갈등의 시발점이 정인성을 염두에 두던 시기보다 이전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그 실상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요컨대 양일아의 폭력은 정인성을 알기 이전부터 한난소를 대상으로 가졌던 갈등의 연속선상에서 발현된 것이라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양일가는 그간 자신이 누려왔던 군주자리를 한난소에게 빼앗겼다는 심리적 박탈감과 거기에서 비롯된 갈등이 ‘정인성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와 결부되면서 점차 심화되는 가운데 위와 같은 폭력 상황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sup>87)</sup>

### 3) 계모의 전실 자식에 대한 폭력 양상

전실 딸에 대한 계모의 폭력은 ‘소교완’과 ‘여부인’에게서 포착되고 있는데, 폭력의 발생 원인이 앞서 그녀들의 폭력성을 검토했던 결과와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여기서는 그 폭력의 양상만 간략히 다루도록 한다.

#### 3-1) 딸 정월염에 대한 계모 소교완의 폭력

87) 선행연구인 이현주, 『<완월회맹연>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99면에서 “<완월>에서는 처첩갈등이 치열하게 펼쳐지기 어렵다”고 하면서 그 예로 “양소저(양일아)가 다른 첩인 한난소를 모해하는 경우가 보이지만 이는 이들 둘이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아 싸운다기보다는 악인이 일방적으로 선인을 모해하는 형상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필자가 양일아와 한난소의 관계를 고찰한 결과, 작품 내에서 이 둘의 갈등관계를 충분히 짚어낼 수 있었음에 이 논의는 재고될 여지가 있다.

소교완의 폭력적 행동은 앞서 머느리 이자염과의 관계 속에서 소교완의 심리적 정황을 분석하는 가운데 살폈다. 전실 자식 정월염<sup>88)</sup>에 대한 소교완의 폭력 또한 그러한 심리적 기반 하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때, 중복된 논의를 피하기 위해 여기서는 폭력이 벌어지는 장면에서 보이는 당사자들의 태도에 초점을 맞춰보기로 한다.

정월염이 돌아가신 어머니 양부인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 친정에 왔을 때, 소교완은 자신의 처소로 그녀를 불러들여 다음과 같은 폭력을 행사한다.

**쇼부인(소교완)이 노목이 땡렬하여 당구 속시의 두 발을 굴너 엽홀 츄 더지니 경영호 몸이 잠간 스이 구러져 서안 머리의 너머지니 화관이 구으 러 버셔지고 운빈이 상하여 피 쇼스늑늘지라.** 당부인(정월염)이 밧비 니러 나 의디를 슈습하여 쇼부인이 므득 교연이 웃고 곶오디, 그리 허슈이 너머지 뇨. 당부인이 홀연이 우어 왈, 일기 극열하니 스롭의 괴운이 심히 곤뇌허거 늘 작야의 침슈를 폐하고 쏘 식스흔물 잘못 하였더니 현기 심하여 그리호도 쇼이다.<sup>89)</sup>

인용문은 자신의 처소로 들어오는 딸 정월염을 향해 매서운 눈초리로 한참을 쏘아보다가 갑작스레 두 발을 구르면서 다리에 힘을 모아 있는 힘껏 그녀의 옆구리를 걷어치는 장면이다. 이러한 폭력 상황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태도 때문에 다소 어색한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소교완은 자신의 처소로 들어오는 정월염을 췌려보다가 갑작스런 발길질로 그녀의 머리에 피가 ‘솟아날’ 정도의 큰 상처를 입힌다. 그리고 나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 웃으며 정월염에게 뭘 그렇게 쉽게 넘어지느냐

88) 정삼과 죽은 전처 양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둘째 딸. 장현의 큰아들 장창린과 혼인하여 슬하에 아들 장현윤을 두고 있다.

89) <완월회맹연> 119권.

고 말을 건넨다.

폭력이 벌어지는 정황만 놓고 판단하자면 현재 정월염은 소교완에게 큰 잘못을 저지른 경우이어야 한다. 그러나 서사의 맥락을 아무리 살펴봐도 정월염이 소교완에게 잘못된 행실을 보였다거나 하는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정월염은 아무런 이유 없이 견어차인 후에도 속히 일어나 옷매무새를 정리하고 있는데, 갑작스런 폭행에도 전혀 당황하거나 놀라는 기색이 없이 오히려 이를 당연한 듯 받아들이고 수습하기에 바쁜 것이다. 이어 정월염은 날씨가 너무 더워 어젯밤 잠을 설쳤고 입맛도 없어 식사를 걸렀더니 현기증이 난 거라며 자신이 쉽게 넘어진 데 대해 변명한다.

작품 속 소교완과 정월염은 심각한 폭력 상황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실상 이를 읽는 독자의 입장에서 이는 다소 어색한 장면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폭력 장면을 두고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해석적 접근이 가능하다. 하나는 <완월회맹연>의 ‘관습화된 서사적 장치’일 수 있다는 점<sup>90)</sup>이고, 다른 하나는 ‘소교완의 이유 없는 폭력의 발생 빈도가 매우 잦았음을 방증’하는 것일 수 있다는 점이다. 필자는 일단 후자에 힘을

90) 한 예로, 장세린의 처 여씨가 첩 정성염의 머리채를 쥐고 흔들어대는 장면에서 정성염의 폭력에 대응하는 태도를 들 수 있다. ‘형클어진 머리를 다듬고 흐트러진 의복을 정리할 여유를 보이는 것’은 현재 폭력이 벌어지고 있는 정황상 맞지 않는 행동인 것이다. 이러한 장면은 긴장감 넘치는 폭력 상황을 만들지 못해 독자의 몰입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장면은 자칫 폭력의 심각성을 의도했던 서술자에게 있어 그 의도와는 다르게 독자들에게 코믹한 장면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장면들이 심심찮게 발견되는데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너시 불로 츄 밀치고 쇼져의 나삼을 잡아 옥져 궂튼 몸을 드리쳐 잡고 업지라미 등의 올라 좃뵈고져 하니 쇼져 처음은 천만 무심 중의 저의 손의 잡히여 상흔 비 되여시나 임의 작변하는 심술을 씨드라시니 술연이 저희 독슈의 유체를 상히오리오. 몸을 그브야이 썩혀 **소두를 헷슬고 의상을 경돈코져 홀신** 너시 물너셔셔 불양흔 목을 기우려 그 거동을 보고 일장을 즐미하고 다시 드리드라 그 몸을 안아 나리치니 <완월회맹연> 167권.

실어 소교완의 이러한 폭력적 행동이 비단 이번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는 점을 근거로 위와 같은 폭력적 장면의 연출이 가능했던 것으로 파악하려 한다.

### 3-2) 교숙란<sup>91)</sup>에 대한 계모 여부인의 폭력

교한필의 처 여부인이 교숙란에게 폭력을 행하는 경우이다. 여부인은 남편의 후처 호부인을 음해하여 집안에서 축출한 후 그녀의 딸 교숙란<sup>92)</sup>을 대신 키우게 된다. 그러나 교숙란이 자신의 세 아들<sup>93)</sup>보다 시어머니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자 그녀를 심하게 구박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다.<sup>94)</sup>

여부인은 호부인만 없애면 시어머니 안성공주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이후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남편마저 축출된 호부인의 딸 교숙란을 애지중지하는 모습을 보이자 교숙란을 향해 악심을 품고 폭력을 행사하며 죽이려고까지 한다. 틈만 나면 교숙란을 없애기 위해 독약을 준비해 먹이지만 그때마다 “숙느니 독약을 먹으나 경직의 토하여 장부를 침노하미 업”고, 또 시어머니와 남편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교숙란에게 “음식을 아니 주나 귀아흐는 스식이 업스니” 여부인이 더

---

91) 본래 처사 주양의 딸 주성열이지만 본 논의에서는 아직 그녀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았으므로 교숙란이란 이름으로 지칭하여 다루기로 한다. 각주 40번 내용 참조

92) 호부인 소생이 아니다. 여부인이 호부인의 둘째 아들을 자신의 소생으로 삼고, 교숙란(주성열)을 데려와 호부인이 낳은 딸인 것처럼 식구들을 속인다. <완월회맹연> 45권.

93) 여부인은 자기 소생의 자식이 없다. 여기 언급한 세 명의 남아들은 그녀가 시택 식구들을 속이며 거짓 임신한 체하고 유모를 시켜 신생아들을 구해와 마치 자신이 낳은 아들들인 양 키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부인의 시어머니 안성공주와 남편 교한필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눈치 채지 못한다.

94) 계모의 전실 소생에 대한 폭력은 아니지만 후처가 축출된 후 그녀의 딸을 본처가 대신 거두어 키운다는 점에서 이 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육 “덜오 식이하여” 마지않는다.

또한 여부인은 남편 교한필이 “숙는 사랑흐를 온전이 하여 정이 갈니 디 아니흐를” 한스럽게 여겨 유모와 짜고 임신했다는 거짓말을 한 뒤 “작인이 비속한 신성 희즈를 구하”여 자신의 소생인 양 기르며 이런 식으로 “희를 년하여 삼기 괴동”을 만든다. 이렇게 하면 안성공주 모자의 사랑을 빼앗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던 여부인은 “공주 모지 삼즈를 으들샤록 녀아을 년이하”자 교숙란에게 다음과 같은 폭력을 행사하게 된다.

분한이 날노 더어 간흉극포함이 능히 감출 길이 업서 이목이 번거치 아닌 곳의난 발년한 노식과 독한 손시로 무단한 슈죄 즐칙이 사람의 견딜 비 아니 오. 간간이 철편 옥척으로 일신을 두다려 새 벅히디고 가족이 썩러져 유혈이 돌지하나 앓기고 측은함이 업서 일시의 죽이디 못흐를 떨치 통한호나 소계 어린 아히 녀시의 흉독을 당하여 보던하미 위티하고 처신하미 두리오 나 천성 디효로 또한 괴달이 비상하여 알푼 거살 춤고 셔름을 셔리담아 일양 효순 은화할 썩니오. 원언과 비분디식이 업스니 공주 모지 녀시의 부즈하를 모로고 이득한 가운데 잇는디라<sup>95)</sup>

여부인은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교숙란에게 호된 폭력을 행사하는데, 살가죽이 떨어져 유혈이 솟아날 정도로 그녀를 때리면서도 이를 갈며 한스러워 하는 모습을 보인다. 교숙란은 여부인이 이렇듯 자신을 때리고 구박함에도 모든 것을 꾀꾀하게 참아내며 여부인을 원망하지 않는다.<sup>96)</sup>

앞서 여부인이 호부인을 향해 독수를 쏘치던 이유가 시어머니 안성공주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교숙란에 대한 지금의 폭력 또한 그 이유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요컨대 여부인이 폭력을 행사하는

95) <완월회맹연> 45권.

96) 교숙란은 여부인이 자신의 생모인 줄 알고 있다.

원인은 시어머니 안성공주의 사랑을 쟁취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교숙란이 호부인의 친딸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호부인에 대한 폭력의 연장선상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sup>97)</sup>

### 3. 폭력적 여성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시각

일반적으로 국문장편 고전소설에서 발견되는 여성 인물 간 폭력은 주로 처첩간의 갈등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 폭력의 정도 또한 수위를 지나친 경우가 종종 포착<sup>98)</sup>된다. 이러한 현상은 후대에 지어진 작품일수록 더욱 두드러지는데, 이는 흥미 요소 위주의 통속적 경향을 반영한 작품 창작의 결과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고에서 다룬 <완월회맹연>은 여러 선행연구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상층 지식인 여성이 향유한 독서물이었던 만큼 실제 그 작품 안에는 수많은 전고(典故)의 사용과 우아하고 품격 있는 문체의 서술이 돋보이는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작품의 전반적인 성격 또한 가문의식의 구현, 잔잔한 가문의 이야기, 당대 이념에 충실한 작품 등으로 논의되어 왔다는 점으로 보아 흥미 요소를 중시한 통속적인 작품들과는 변별되는 서사적 분위기를 지님을 알 수 있다.<sup>99)</sup>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앞서 제시한 여성 인물들의 폭력 장면

97) 여부인의 폭력 발생의 동인이 후처 호부인으로 인한 자신의 본처 자리가 위협받는다 는 심리적 압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이 부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98) <임씨삼대록>의 경우 여성 인물들의 폭력 양상이 심심찮게 일어남과 동시에 그 수 위 또한 <완월회맹연>과 비교했을 때, 보다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99) 국문장편 고전소설의 주 향유층이 상층 사대부 여성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창작연대가 후대로 추정되는 작품일수록 통속적 흥미를 고려한 폭력 장면들을 노골적으로 그려내고 있는데, 이러한 요소들이 작품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동떨어진 느낌을 보이진 않는다.

들은 <완월회맹연>의 전반적 성격상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히나 이 작품은 선행연구에서도 추정했듯이 작가와 독자층이 상층 사대부가의 여성 지식인이라는 점에서 적잖이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 상층 사대부가와 궁중에서 애독되었을 작품에 이렇듯 무식하기 이를 데 없는 폭력 상황은 주로 하층민들 사이에 벌어질 만한 수준이기 때문이다.<sup>100)</sup> 물론 작품 전반적인 성격상 어울리지 않는 장면이라 하더라도 독서물로서 향유되는 데 있어서 일말의 흥미요소 정도로 여기고 넘길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면이 문제시되는 것은 잔잔한 서사적 흐름을 방해할 정도로 어색하면서도 당황스러운 상황을 만들기 때문이다.

<완월회맹연>의 작가 추정을 둘러싼 기존 여러 논의들을 종합해보면 작품의 전반적인 분위기, 서술 태도 등을 통해 이는 여성적 성격을 지닌 작품이며 상층 여성 작가의 창작물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sup>101)</sup>을 제시한다. 기존의 견해를 수긍하는 가운데 그렇다면 과연 상층 여성 작가가 같은 상층 여성을 작품 속 등장인물로 설정했을 때, 왜 이렇듯 폭력적인 인물로 구현해냈을까?

이유는 여러 가지로 상정해볼 수 있는데, 먼저 둘 이상의 폭력당사자 가운데 피해자에게 비중을 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는 앞서 소교완과 이자염 간에 벌어진 폭력을 예로 들어볼 때, 가해자인 소교완보다는 피해자인 이자염의 입지를 더욱 굳건히 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 혹독한 폭력에도 묵묵히 견뎌내는 이자염의 효심을 부각시키기 위함인 것이다.<sup>102)</sup> 그러

100) 특히나 <완월회맹연>에서 소교완은 상층 사대부 여성의 시어머니로서 제시되고 있는데 이러한 소교완이 며느리 이자염과의 관계에서만은 거의 살인병기처럼 변모하고 있다. 위엄 있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유지하던 소교완은 어느 순간 며느리 이자염을 살해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마냥 그녀를 올라타며 물어뜯고 거의 발광에 가까운 몸부림을 보여준다.

101) 정병설, 위의 책, 1998. / 정창권, 위의 책, 2002.

나 이러한 해석은 당대의 이념에 부합하는 교과서적인 결론을 도출한다는 의미에서 진부한 면이 없지 않다.

그렇다면 여기엔 서술자의 또 다른 의도가 숨어 있지 않을까? 바로 폭력의 가해자인 소교완이라는 캐릭터를 통해 상층 사대부 여인에 대한 통념을 깨뜨리고 전복시키기 위함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항상 옳고 바른 것만 추구하고 고상하면서도 우아해야만 하는 상층 사대부 여인으로서의 절제 있는 행동은 ‘그렇게 길러진 여성’이 취할 수 있는 것이고, 시대가 원하는 여성상에서 이탈하고픈 바람<sup>103)</sup>을 충족시키기 위한 여성 인물을 창조하려는 시도였을 수 있다.

인간의 본성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며 누구에게나 존재하기 마련이다. 특히 남성과 여성을 엄격히 구분지어 차별하던 조선이라는 당대의 현실적 맥락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점은 변함없는 것이다. <완월회맹연>의 서술자는 바로 이러한 점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다. 사대부가 여성의 취향에 적합한 형식과 내용을 구비한 국문장편 고전소설을 통해 그녀들이 내면화했던 이념을 재확인하면서 한편으로는 분출하지 못했던 감정, 정서를 발현했던 것이다. 국문장편 고전소설이 사대부가 여성의 이념과 정서의 방수로(放水路)라고 할 수 있<sup>104)</sup>다면 상층 사대부 여

---

102) 이자염은 시어머니 소교완의 폭력을 아무런 불평 없이 견뎌내며 오히려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죄까지도 억울하게 뒤집어쓰면서 시어머니의 실덕(失德)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모습을 보인다.

103) 여기엔 단순히 시대가 바라는 여성상에서 벗어난 행동을 한다는 소극적인 의미 외에 자신들을 시대와 체도에 얽어매어 한 기문의 종속적 존재로만 위치 지으려는 당대의 이념을 소설이라는 양식을 빌려 일시적으로나마 전복시키는 쾌감을 맛보고자 한 의도도 내포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당대 여성들의 바람은 <완월회맹연>의 폭력적 여성 인물의 창조로 실현된 것이다.

104) 장시광, 『조선 후기 대하소설과 사대부가 여성 독자』, 『동양고전연구』29, 동양고전학회, 2007, 173면 참조.

성의 정서 표출에 있어서 기폭제 역할을 담당한 것은 바로 ‘폭력적 여성 인물의 창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남성성, 여성성 등의 구분도 당대의 잣대로 보면 제도적 현실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받아들여진 것일 뿐, 그러한 불평등한 그리고 불공평한 상황에 대해 여성의 입장에서 방촌에 인을 품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사정은 이미 조선이라는 불합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곳곳하게 창작되는 여러 작품들을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러나 당대의 현실적 맥락을 고려하는 가운데, 또 <완월회맹언>의 작가를 ‘안검제의 모친 이씨’라고 상정<sup>105)</sup>했을 경우에, 이러한 폭력적인 여성 인물의 창조는 유교 윤리를 내면화하여 부덕을 갖추며 살아가야 했던 당시의 상층 사대부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어불성설인 것이며 설령 작품 속에서 그러한 인물을 창조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당대 이념에 비추어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할 방도를 마련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했던 <완월회맹언>의 서술자는 소교완의 폭력성을 어디까지나 작품 속 ‘천상계의 운위에 따른 운명적인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는 소교완이 이자염을 죽도록 때린 후 이어진 장면에서, 서술자가 소교완의 폭력을 두고 “소계 시운(時運)이 건비하고 운厄(運厄)이 티험흔 씨를 만나 여츠 변난을 당하니 츠츠 비의로다”<sup>106)</sup>라는 식의 언급을 하고 있는 데서도 엿볼 수 있다. 서술자는 당대 유교 윤리에 입각한 하늘이 내린 효성스런 며느리이자 효의 이념적 표상으로 상징되는 이자

105) 전주 이씨 작가설은 임형택(『17세기 규방소설의 성립과 창선감의록』, 『동방학지』57, 연세대 국학연구원, 1988, 164면)에 의해 처음 거론되었고, 이후 최길용(『기문소설계장편소설의 형성과 전개』, 『국어국문학연구』, 연거재신동익박사정년기념논총 간행위원회, 1995, 568면)과 정병설(앞의 책, 1998, 172-223면)에 의해 다시 제기되었다. 한길연, 『조선후기 대하소설의 다층적 세계』, 소명출판, 2009, 335면의 내용 재인용.

106) <완월회맹언> 53권.

염을 극심한 폭력의 희생양을 만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설정은 당대의 지배적 효 이념에 정면 도전하는 것으로 비취질 수 있기에 이를 무마시킬 다른 비상구를 마련해놓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한 방안의 한 가지로 서술자는 이자염의 그러한 고통이 '시운'과 '운액'이 지극히 험난한 때를 만났기 때문이라고 제시함으로써 상층 사대부 여성 가운데 소교완이라는 폭력적인 여성 인물을 거리낌 없이 창조해낼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소교완이란 여성 인물을 통해 폭력적인 장면을 연출하는 가운데 당대의 현실적 이념을 전복시키고자 했던 서술자는 당시 상층 사대부 여성들의 행동방식과는 맞지 않았던 이러한 폭력성을 어디까지나 하늘의 소관인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그간 속 시원히 분출하지 못했던 억눌린 감정적 요소들을 표출할 수 있었던 것이다. 상층 사대부 여성의 한 예로 창조한 인물인 소교완을 전적으로 부정하지 않는 가운데 두 가지를 한꺼번에 아우르려는 서술자의 의도를 읽을 수 있는 것이다. 그 첫째는 순종적인 부덕(婦德)을 내면화하게끔 작용했던 당대의 유교 윤리를 비꼬며 전복시키는 것이요, 둘째는 작품 속 여성 인물들의 폭력적 행위에 대한 면죄(免罪)를 성립시키려는 것이다.<sup>107)</sup>

이러한 서술자의 시각은 폭력적 여성 인물의 처리 방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폭력자 소교완은 사경을 헤맬 정도의 병치레를 하는 동안 꿈속에서 친어머니 주태부인과 남편의 전처 양부인을 만나는 가운데 지금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고난 과정은 이미 천상에서 벌어졌던 사건들과 관련해 운명적으로 정해진 것이었다는 점을 알게 된다. 이는 곧

---

107) 이러한 작품 창작은 유교적 가부장제를 적극 수용하도록 권장하는 여성교훈서들이 이 시기에 활발히 제작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윤리적으로 강제된 글쓰기나 독서와는 구분되는, 당대 여성들의 사실적 욕구를 표출하는 장으로서의 고전소설의 역할과 의의를 재확인하게 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이지하, 『18·9세기 여성중심적 소설과 여성인식의 다층적 면모』, 『고소설연구』31, 한국고소설학회, 2011, 136면 참조.

소교완이 이자염에게 행했던 맹목적인 폭력<sup>108</sup>도 실은 천상계에서 이미 정해놓은 운명에 따른 것뿐이라는 점에서 그녀의 ‘폭력적 행위에 대한 면죄’가 성립되도록 탈출구를 마련해놓은 셈이다.<sup>109</sup> 처처 간 폭력의 가해자였던 교씨 가문의 여부인은 호부인을 축출한 이후에도 교숙란을 향해 계속된 폭력과 악행을 서슴지 않다가 결국 집안에서 쫓겨나는데<sup>110</sup> 그 후 연못에 빠져 시신도 찾지 못하는 상황으로 처리된다. 아무리 소설이라 하더라도 당대 지배이념의 제약엔 속수무책이었다는 점을 짐작케 하는 부분이다. 현실적으로 용납될 수 없었던 여성 인물의 경우 이러한 방식으로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해야만 했던 것이다. 또한 첩첩 간 폭력의 가해자였던 장씨 부종의 여씨는 추한 외모와 난폭한 성격 때문에 시댁 식구들로부터 외면 받다가 결국 처녀의 몸으로 죽게 된다. 가부장제 내에서 여씨는 여성상은 용납될 수 없었지만 서술자는 추악한 외모를 지닌 여성도 감정과 정서를 표현할 수 있는 한 인간으로서 구현해내고자 했다. 따라서 이렇듯 억울한 죽음으로 생을 마감해야 했던 여씨를 다시 원귀로 출현시켜 그녀의 원통함을 해소시켜준다. 현실에서는 신랄하게 비판할 수 없는 가부장제에 속한 인물들을 귀신의 형상을 빌어 거침없이 꾸짖고 훈계하기를 마지않았던 것이다. 또한 첩첩 간 폭력의 가해자였던 양일이는 계속된 폭력적 행동으로 인해 친아버지 양순에게 끌려가 독약을 먹고 죽게 될

108) 선량한 며느리 이자염에 대한 폭력은 소교완의 심리적 기반 하에서 비롯된 맹목적인 행위로 보이지만 이는 ‘당대 이념을 비판하고자 하는 서술자의 의도’를 거리낌 없이 표출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념적 제약에 위배되지 않게끔 설정된 장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설정은 지배이념에 철저히 예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완월회맹연>의 서술자뿐만 아니라 조선후기에 그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창작된 수많은 국문장편 고전소설의 서술자가 지니는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도 있겠다.

109) 이후 건강을 회복한 소교완은 큰 깨달음을 얻고 다시 유교적 윤리에 입각한 어머니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110) 이후 여부인은 여러 가지 모해로 교씨 가문을 파멸로 몰고 가려는 모습을 보인다.

위기에 처하는데 이때 그녀의 시아버지인 정잠이 보낸 편지에 감화돼 그 간의 행실을 반성<sup>111)</sup>하고 정씨 부중으로 복귀하게 된다.

이렇듯 폭력적 여성 인물에 대한 처리방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소 교완이나 양일아처럼 개과하여 유교적 이념을 내면화하는 모습을 갖춘 여성만을 가부장제 가문 내 질서 안으로 편입시키면서 그간 그녀들의 폭력적 행위는 자연스레 면죄되는 것으로 귀결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 외 폭력을 자행하던 여성 인물인 여부인과 여씨는 당대 지배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했기에 이들을 현실에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그 처리방식 또한 집안 내에서 축출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부인 같은 경우는 행방불명된 것으로 결말짓거나 또 여씨와 같이 죽음으로 끝맺는 방식을 보여준다. 여씨는 후에 귀신으로 등장시켜 미처 정화되지 못한 감정의 찌꺼기를 풀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현실적으로는 실현 불가능한 상황이기에 설정할 수 있었던 것이다. 즉 <완월회맹연>의 서술자는 폭력적 여성 인물을 통해 당대 유교 윤리를 비판하면서도 그러한 여성 인물들의 처리 방식에서만큼은 궁극적으로 가부장제에 입각한 지배 이념을 수증하는 서술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문제의식을 희석시키고 마는<sup>112)</sup> 한계를 보이고 있다.

#### 4. 결론

본고에서는 <완월회맹연>에 등장하는 여성 인물 간 펼쳐지는 폭력 상황에 초점을 맞춰 일련의 폭력 사건이 그녀들의 심리적 갈등에서 비롯되

---

111) <완월회맹연> 140-141권.

112) 이지하, 위의 논문, 2011, 139면 참조.

있음을 전제하고 이를 작품 내 여러 가지 정황을 분석하는 가운데 그 원인을 규명해 보았다. 아울러 당대엔 통용될 수 없었던 이러한 폭력적 여성 인물의 창조를 가능케 했던 서사적 동인은 무엇이었는지 작품 내 서술자의 시각을 추출하는 가운데 살피는 작업을 병행하였다.

<완월회맹연>에서 여성 인물 간 폭력의 양상은 한쪽의 일방적인 폭력으로 인해 상대방이 피해를 입는 경우로만 나타났다. 먼저 고부간에 벌어진 소교완의 폭력은 그녀가 성장과정에서 받아온 심적 스트레스로 인한 성격적 결함에서 그 1차적 원인을 찾을 수 있었고, 이후 후처의 지위에서 오는 불안감과 시댁 식구들로부터 받은 소외감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전실 자식인 정월염을 향해 자행하던 폭력도 고부간에 보여 주었던 폭력의 성격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같은 맥락에서 다를 수 있었다. 다음으로 처처 간의 폭력은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한 쟁송이 아니라 점에 기존 연구와는 차이를 보였는데, ‘시어머니의 편애’에 따른 여부인의 심리적 갈등이 극도에 다다라 폭력으로 표출된 것은 ‘시어머니의 사랑을 독점하려는 여부인의 심리적 욕망’에서 그 궁극적 원인을 찾을 수 있었다. 이는 후처가 축출된 이후에도 교숙란에 대한 폭력이 계속 이루어진 점을 근거로 여부인의 폭력이 본처의 자리를 위협받는다는 심리적 압박에 의한 것이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처첩 간 여씨의 폭력은 자신을 버리고 첩을 택한 남편에 대한 복수심에서 그 원인을 규명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첩첩 간에 양일아가 보인 폭력의 원인은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한 쟁송인 것 같지만 이전부터 한난소를 상대로 가졌던 갈등의 연속선상에서 발현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었다. 양일가는 자신의 군주자리를 한난소에게 빼앗겼다는 심리적 박탈감과 거기서 비롯된 갈등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와 결부되면서 심화되는 가운데 폭력의 가해자가 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완월회맹연>의 서술자는 소교완을 비롯한 여러 폭력적인 여성 캐릭터의 창조를 통해 계층적으로는 상층의, 가문 내에서는 며느리이자 아내의 지위에 있는 여성이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심리를 구현해내고자 했음을 살필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여성 인물의 형상화는 그녀들과 같은 입장에 처한 인물이라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어날 법한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이를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작품을 통해 맞볼 수 있는 여러 흥미로운 점 외에도 인간 본성의 구현을 위한 의식적 맹아, 다시 말하면 상층 사대부 여성의 틀에 얽매어 쉽게 분출될 수 없었던 그녀들의 잠재된 의식을 튀우려는 조짐을 서서히 보여주기 위한 시도였음을 밝힐 수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완월회맹연>의 서술자는 이러한 폭력적 여성 인물의 창조조차 당대 이념에 위배되는 것으로 치부될 여지가 있기에 그녀들의 처리 방식에 있어서만큼은 당시의 지배 이념에 예속된 태도를 견지하는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즉 소교완이나 양일아처럼 개과하여 유교적 이념을 내면화한 여성은 가문 내 질서 안으로 편입시키며 그간의 폭력적 행위는 자연스럽게 면죄되는 것으로 귀결시키고 있는 반면 당대 이념을 내면화하지 않은 여성 인물에 대해서는 죽음으로 결말짓거나 행방불명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은 <완월회맹연>을 대상으로 여성 인물 간 폭력의 양상을 다루고 있으나 동시대에 산재해 있는 여러 국문장편 고전소설에서 보이는 여성 인물 간 벌어지는 폭력도 아울러 논의 대상에 포함시킬 때 그 의미가 더욱 확연히 드러날 것이다. 이는 차후의 연구 과제로 남긴다.

참고문헌

- 김진세, <완월회맹연> 독해본 12권,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7.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본 <완월회맹연> 180권 180책
- 김경미, 『소수자 문학으로서의 고전여성문학의 성격과 그 의미』, 『고전문학연구』 29, 한국고전문학회, 2006, 47~70면.
- 김기동, 『<완월회맹연>고』, 『국어국문학』79·80, 국어국문학회, 1979, 21~44면.
- 김문희, 『국문장편소설의 묘사담론 연구』, 『서강인문논총』28,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0, 5~41면.
- 김수연, 『<화씨충효록>의 문학적 성격과 연작 양상』,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1~200면.
- 김수연, 『조선 후기 소설개작과 서사의 소통』, 보고서, 2011, 1~349면.
- 김진세, 『<완월회맹연> 연구(1)』, 『관악어문연구』2,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77, 27~52면.
- 김진세, 『이조 후기 대하소설 연구-<완월회맹연>의 경우』, 『한국소설문학의 탐구』, 한국고전문학회, 1978, 101~147면.
- 김진세, 『<완월회맹연> 연구(2)』, 『관악어문연구』4,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79, 27~50면.
- 김진세, 『<완월회맹연> 연구(3)』, 『관악어문연구』5,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80, 1~20면.
- 김진세, 『조선조 후기소설에 나타난 세계관의 변이양상-<완월회맹연>을 중심으로-』, 『한국문화』10,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89, 37~60면.
- 김진세, 『고전 장편소설에 나타나는 순수 우리말 용례-<완월회맹연>의 경우』, 『한글』226, 한글학회, 1994, 181~201면.
- 김진세, 『조선시대 창작 소설의 걸작 <완월회맹연>』, 『한국인』14, 사회발전연구소, 1995, 110~114면.
- 서정민, 『2004년도 고전소설 분야 연구 동향』, 『국문학연구』14, 2006, 317~343면.
- 성영희, 『<완월회맹연>의 서사 구조와 의미』,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1~67면.
- 송성욱, 『조선시대 대하소설의 서사문법과 창작의식』, 태학사, 2003, 1~308면.

- 양민정, 「대하 장편가문소설에 나타난 여성인식과 의의」, 『연민학지』8, 연민학회, 2000, 131~167면.
- 이선형, 「<쌍천기봉> · <이씨세대록> 인물의 성장 의미」,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1~225면.
- 이승복, 『고전소설과 가문의식』, 월인, 2000, 1~436면.
- 이은경, 「<완월회맹연>의 인물 연구」, 충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1~149면.
- 이은경, 「<완월회맹연>에 나타난 어머니의 양상과 의미」, 『개신어문연구』21, 개신어문학회, 2004, 149~181면.
- 이지영, 「조선후기 대하소설에 나타난 일상-〈완월회맹연〉을 중심으로」, 『국문학연구』13, 국문학회, 2005, 33~56면.
- 이지하, 「조선후기 여성의 어문생활과 고전소설」, 『고소설연구』26, 한국고소설학회, 2008, 303~331면.
- 이지하, 「18·9세기 여성중심적 소설과 여성인식의 다층적 면모」, 『고소설연구』31, 한국고소설학회, 2011, 111~144면.
- 이현주, 「<완월회맹연>의 역사수용 특징과 그 의미」, 『어문학』109, 한국어문학회, 2010, 197~226면.
- 이현주, 「<완월회맹연>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1~188면.
- 이현주, 「<완월회맹연>의 이본현황과 서지적 특징」, 『어문학』111, 한국어문학회, 2011, 193~225면.
- 이혜순, 『조선조 후기 여성 지성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7, 1~414면.
- 장시광, 『한국고전소설과 여성인물』, 보고서, 2005, 1~315면.
- 장시광, 「조선시대 대하소설의 여성반동인물」, 한국학술정보(주), 2006, 1~333면.
- 장시광, 「조선 후기 대하소설과 사대부가 여성 독자」, 『동양고전연구』29, 동양고전학회, 2007, 147~176면.
- 장시광, 「<명주보월빙>의 여성수난담과 서술자의식」,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17,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8, 309~342면.
- 장시광, 「<소현성록> 연작의 여성수난담과 그 의미」, 『우리문학연구』28, 우리문학회, 2009, 131~165면.
- 장시광, 「<유효공선행록>에 형상화된 여성수난담의 성격」, 『배달말』45, 경상대학교 배달말학회, 2009, 217~255면.
- 장시광, 「<현몽쌍룡기> 연작에 형상화된 여성수난담의 성격」, 『국어국문학』152,

- 국어국문학회, 2009, 365~410면.
- 장시광, 「대하소설의 여성과 법-종통, 입후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19,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9, 127~178면.
- 장시광, 「〈쌍천기봉〉 여성수난담의 특징과 그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21,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0, 187~232면.
- 장시광, 「운명과 초월의 서사-〈임씨삼대록〉 여성수난담의 성격」, 『고소설연구』31, 한국고소설학회, 2011, 145~182면.
- 정길수, 「한국 고전소설에 나타난 ‘중화주의’」, 『국문학연구』15, 국문학회, 2007, 131~151면.
- 정길수, 「2009년도 고전소설 분야 연구동향-고전장편소설 연구의 문제」, 『국문학연구』22, 국문학회, 2010, 259~280면.
- 정병설, 「〈옥원재합기연〉의 여성소설적 성격」, 『한국문화』21,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998, 45~62면.
- 정병설, 『〈완월회맹연〉 연구』, 태학사, 1998, 1~325면.
- 정병설, 「조선후기 정치현실과 장편소설에 나타난 소인의 형상-〈완월회맹연〉과 〈옥원재합기연〉을 중심으로」, 『국문학연구』4, 국문학회, 2000, 231~259면.
- 정병설, 「2003년 고전소설 분야 연구동향」, 『국문학연구』12, 국문학회, 2004, 245~261면.
- 정선희, 「〈소현성록〉에서 드러나는 남편들의 폭력성과 서술 시각」,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14,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7, 453~487면.
- 정선희, 「〈조씨삼대록〉의 악녀 형상의 특징과 서술 시각」,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18,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9, 389~419면.
- 정선희, 「17·18세기 국문장편소설에서의 부모-자녀 관계 연구」, 『한국고전연구』21, 한국고전연구학회, 2010, 169~200면.
- 정선희, 「가부장제하 여성으로서의 삶과 좌절되는 행복-〈소현성록〉의 화부인을 중심으로-」, 『동방학』20,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11, 57~84면.
- 정선희, 「영웅호걸형 가장의 시원-〈소현성록〉의 소운성」, 『고소설연구』32, 한국고소설학회, 2011, 153~185면.
- 정선희, 「〈조씨삼대록〉의 보조인물의 양상과 서사적 효과」, 『국어국문학』158, 국어국문학회, 2011, 245~274면.
- 정선희, 『고전소설의 인물과 비평』, 보고사, 2011, 1~315면.

- 정창권, 「<완월회맹연>의 여성주의적 상상력」, 『고소설연구』5, 한국고소설학회, 1998, 245~270면.
- 정창권, 「조선후기 장편 여성소설 연구-〈완월회맹연〉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1~175면.
- 정창권, 『한국 고전여성소설의 재발견』, 지식산업사, 2002, 1~226면.
- 정창권, 「대하소설 <완월회맹연>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개발」, 『어문논집』59, 민족어문학회, 2009, 85~110면.
- 조혜란, 「삼대륙계 국문장편소설에 나타난 추모(醜貌)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18,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9, 483~518면.
- 조혜란, 「가문과 개인사이-〈임씨삼대륙〉의 임관홍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29, 한국고소설학회, 2010, 255~289면.
- 조혜란, 「취향의 부상-〈임씨삼대륙〉의 반복 서술을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37, 한국고전문학회, 2010, 135~173면.
- 최수현, 「〈임씨삼대륙〉 여성 인물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1~199면.
- 한길연, 「소인형 장인이 등장하는 용서대립담 연구」, 『고소설연구』15, 한국고소설학회, 2003, 277~315면.
- 한길연, 「〈창란호연〉과 <완월회맹연〉 비교 연구-가정 내적 갈등을 중심으로」, 『관악어문연구』28,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03, 405~437면.
- 한길연, 「〈옥원재합기연〉과 <완월회맹연〉의 비교 연구-정치적 갈등양상을 중심으로」, 『국문학연구』11, 국문학회, 2004, 161~195면.
- 한길연, 「〈완월회맹연〉의 모티브 활용 양상 연구」, 『성심어문논집』26, 성심어문학회, 2004, 165~196면.
- 한길연, 「〈완월회맹연〉의 서사문법과 독서역학」, 『한국문화』36,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5, 25~55면.
- 한길연, 「대하소설의 의식성향과 향유층위에 관한 연구:<창란호연록>·<옥원재합기연>·<완월회맹연〉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1~276면.
- 한길연, 「대하소설의 일상 서사의 미학-일상과 탈일상의 줄타기」, 『국문학연구』14, 국문학회, 2006, 125~149면.
- 한길연, 「장편고전소설에 나타나는 어머니의 존재방식과 모성」, 『한국고전여성문

학연구』14,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7, 223~266면.

한길연, 『조선후기 대하소설의 다층적 세계』, 소명출판, 2009, 1~403면.

한길연, 『대하소설에 나타나는 ‘남편 폭력담’의 양상과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 연구』21,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0, 69~121면.

허순우, 『〈현몽쌍룡기〉연작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1~200면.

ABSTRACT

The Aspects and Narrative Perspectives of the Violence between  
Woman Characters in <WanWolHoeMaengYeon>

Han, Jeong-Mi

This paper, focused on the violent situations seen between the upper class woman characters in <WanWolHoeMaengYeon>, tries to clarify the causes of the violence while analyzing the psychological conflicts between the parties involved. Also, in parallel with the extraction of the viewpoint of the narrator within the literary work, this paper works on the investigation of what was it that enabled the creation of such violent woman characters in the last Joseon period when they are impossible to accept.

As a result, we can find out the narrative motivation with which the narrator was able to create such violent woman characters from the attempt, with the help from the genre of novel, at leading the reader to taste the pleasure of turning over the very contemporary ideology, though temporarily, in which people only recognized women as subordinate existence within families. However, on the other hand, the narrator of <WanWolHoeMaengYeon> also revealed limitations in that she should maintain an attitude that was thoroughly subject to the ruling ideology at that time at least in the measure to dispose of the violent woman characters as even the creation of such violent woman characters could be taken as a violation of the ideology at that time.

**Key Words** <WanWolHoeMaengYeon>, violence, woman, classic long novels written in Hangeul, mother-and daughter-in-law, struggle for love, wife and concubine

논문투고일 : 2012. 04. 30  
심사완료일 : 2012. 06. 01  
게재확정일 : 2012. 06. 05

